

필리핀 개황

2019. 11



외교부



Republic of
the Philippines

Manila

필리핀 국기



- 현재의 국기는 1897년 필리핀의 독립 영웅 아기날도(Emilio Aguinaldo) 장군이 도안한 것으로, 1898년 6월 12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선언 시 처음으로 게양되었다.
- 흰색은 자유·평등·우애, 청색은 평화·진실·정의, 적색은 애국심과 용맹을 상징하는데, 전쟁 시에는 청색과 적색의 위치가 서로 바뀐다.
- 삼각형 안의 노란 태양은 자유를 뜻하며, 태양의 여덟 갈래의 빛은 스페인의 계엄령에 최초로 대항한 8개의 주를, 세 개의 별은 필리핀의 커다란 세 지역인 루손, 비사야스, 민다나오를 의미한다.

필리핀 국가 문장



- 빛나는 태양과 세 개의 별, 백색·청색·적색의 의미는 국기와 동일하며, 독수리와 사자는 각각 미국과 스페인 하의 식민 역사를 상징한다.
- 필리핀 정부 차량에는 독수리와 사자 그림이 없는 국장을 부착한다.

연표로 본 필리핀 역사



필리핀 개관

가. 일반

국명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수도	메트로마닐라 (인구 : 약 1,288만 명)
면적	300,400km ² (한반도의 1.3배) ※ 7,107개의 도서로 구성, 전체의 65%가 산악지대
기후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
인구	1억 700만 명 (2018, IMF)
민족 구성	말레이계가 주종이며 중국·미국·스페인계 혼혈 다수
언어	영어 및 타갈로그어(Tagalog)
종교	가톨릭(83%), 개신교(9%), 이슬람교(5%), 불교 및 기타(3%)
시차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늦음

나. 정치

정부 형태	대통령제 (6년 단임)
국가 원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Roa Duterte)
의회	양원제 : 상원(24석, 임기 6년), 하원(299석, 임기 3년)

주요 정당	PDP-Laban (민주필리핀당) LP (Liberal Party, 자유당) NP (Nacionalista Party, 국민당) NUP (National Unity Party, 국민통합당) UNA (United Nationalist Alliance, 통합국민연합) NPC (Nationalist People's Coalition, 국민연합당) LDP (필리핀 민주당)
독립일	스페인에게서 독립을 선언한 1898년 6월 12일
UN 가입일	1945년 10월 24일

다. 군사

총 병력	약 12만 5천 명
국방 예산	30억 달러 (2019.8.)
병역제도	현역 : 자원제 / 예비군 : 의무제(대졸자에 국한)

라. 경제

(2018년 기준, IMF)

GDP	3,309억 달러
1인당 GDP	3,104달러
GDP 성장률	6.2%
수출	676억 달러
수입	1,091억 달러
화폐 단위	페소(Peso), 1 미달러=52.7페소 (2018년 평균, 세계은행)

목차

I. 역사

1. 스페인 정복 이전 시대 12
2. 스페인 식민지 시대 13
3. 미국 식민지 시대 14
4. 일본 점령기와 독립 15
5. 필리핀 공화국 16

II. 정치

1. 행정부 22
2. 사법부 28
3. 정당 및 의회 30
4. 지방 행정 36
5. 정치 정세 38

III. 외교

1. 외교정책 기조 44
2. 주요국 및 아세안과의 관계 45
3. 수교국 및 공관 현황 53

IV. 국방

1. 개 관 58
2. 국방 현대화 계획 59
3. 대외 군사협력 현황 60

V. 경제

- 1. 개 관 64
- 2. 산 업 68
- 3. 교 역 69
- 4. 외국인 투자 70

VI. 사회·문화· 교육

- 1. 치 안 74
- 2. 교 육 78
- 3. 종 교 79
- 4. 여 성 80
- 5. 언 론 82

VII. 우리나라와의 관계

- 1. 기본 관계 86
- 2. 정무 관계 87
- 3. 경제·통상 관계 89
- 4. 문화·인적 교류 94
- 5. 영사·교민 관계 96

VIII. 북한과의 관계

- 1. 정무 관계 100
- 2. 통상 관계 101
- 3. 각종 단체 102

부 록

- 1. 주요 인사 약력 104
- 2. 협정 및 조약 체결 현황 109
- 3. 역대 공관장 현황 111
- 4. 양국 공관 현황 114

I

역사

1. 스페인 정복 이전 시대
2. 스페인 식민지 시대
3. 미국 식민지 시대
4. 일본 점령기와 독립
5. 필리핀 공화국

1. 스페인 정복 이전 시대 (~1571)

가. 원주민·말레이계 유입

- 약 3만 년 전 보르네오·수마트라 등지에서 원주민인 네그리토(Negrito)가 이주하여 정착하였으며, 기원 전·후 말레이 계통 원주민 유입

나. 부락 공동체 생활

- 지형이 산악과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착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소규모 바라가이(Barangay)* 단위로 생활
* 바라가이 : 다뚜(Datu)를 우두머리로 하는 가족 중심의 부락 공동체
- 통일된 중앙정부나 국가가 성립된 적이 없으며, 스페인 정복 당시의 인구는 약 50만 명으로 추정

다. 이슬람교의 유입

- 14세기 이후 무슬림이 이주하면서 이슬람교가 전래되었는데 이들은 남부 술루(Sulu) 군도에서 민다나오(Mindanao)섬 일대에 정착하였고, 16세기 중반에는 루손(Luzon)섬 북부 지역까지 진출
- 이슬람 왕국의 국왕(Sultan) 또는 왕(Raja)이 지배하는 소규모 영토국가 성립

2. 스페인 식민지 시대(1571~1898)

가. 스페인의 필리핀 정복

- 1521년 포르투갈의 항해가 마젤란(Ferdinand Magellan)이 사마르(Samar) 섬에 상륙한 후, 스페인은 여러 차례 원정대를 파견한 끝에 1571년 필리핀 정복
- 당시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2세(Felipe II)의 이름을 따서 필리피나스 섬(Las Islas Filipinas)으로 정하고 마닐라에 총독을 두고 약 327년간 지배
 - 1821년까지는 스페인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멕시코 총독을 통해 간접 통치

나. 스페인에 대한 저항운동

- 1860년 스페인에서 내란이 발생하였고 필리핀에서도 1892년 ‘필리핀 민족동맹(La Liga Filipina)’이 조직되는 등 스페인에 대한 저항운동이 조직화
 - 초기의 저항운동은 필리핀의 독립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필리핀을 스페인의 일부로 인정하여 완전한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근대 필리핀의 대표적 민족주의자인 호세 리살(Jose Rizal)이 1892년 체포되어 처형되면서 민족주의 운동은 크게 위축
 - 보니파시오(Andres Bonifacio)를 주축으로 한 혁명세력들은 1892년 비밀결사 조직 ‘카티푸난(Katipunan)’을 결성하고 무장봉기하였으나 스페인군에게 패퇴
 - 보니파시오는 아기날도(Emilio Aguinaldo)와의 노선 투쟁에서 밀려 1897년 반대파에 의해 처형

- 1896년부터 스페인을 상대로 무장독립운동을 전개한 아گی날도 장군은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하자 1898년 6월 12일 필리핀의 독립을 선언하고 혁명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

3. 미국 식민지 시대(1898~1946)

가. 미국·스페인 강화조약

- 1898년 12월 10일 미국-스페인 강화조약(파리 조약)을 통해 스페인이 2천만 달러를 받고 필리핀을 미국에 이양
- 미국이 필리핀을 강압적으로 통치하자 아گی날도 장군은 1899~1901년 간 미국을 상대로 무장독립운동(필리핀-미국 전쟁) 전개
 - 1901년 3월 아گی날도 장군 납치 이후 독립운동의 동력 상실

나. 점진적인 자치 허용

- 1907년 최초의 의회선거 실시 및 1916년 양원제 도입
-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미국에서는, 필리핀의 값싼 농산물과 노동력 유입에 반대하는 산업계·노동계의 로비로 필리핀의 독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고, 1934년 타이딩스-맥더피 법(Tydings McDuffie Act)에 따라 필리핀 내 자치정부 수립과 10년 후 완전한 독립을 약속
- 1935년 11월 15일 케손(Manuel L. Quezon) 대통령의 자치정부 수립 (Commonwealth of the Philippines 출범)

4. 일본 점령기(1942~1945)와 독립(1946.7.4)

- 1941년 12월 일본이 필리핀 내 미군 기지를 공습, 1942년 마닐라 점령
- 1942년 3월 맥아더(Douglas MacArther) 사령관 휘하의 필리핀 주둔 미군이 일본에 밀려 호주로 철수하면서 일본의 필리핀 식민통치 시작
- 1943년 10월 14일 일본에 의한 라우렐(Jose P. Laurel) 괴뢰정부 수립
- 1944년 10월 맥아더 장군의 레이떼(Leyte) 섬 상륙으로 미국-일본 간 전면전 개시, 1945년 9월 2일 일본 항복 후 미국이 필리핀 재지배
 - 마닐라 전투로 대부분의 건물과 도로가 파괴되었으며, 100만 명 이상의 필리핀인 사망
- 1945년 2월 3일 맥아더 장군이 오스메냐(Sergio S. Osmeña) 대통령에게 자치정부 이양
- 1946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로하스(Manuel Roxas)가 당선되고, 7월 4일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독립
 - ※ 필리핀은 스페인에서 독립한 6월 12일을 독립기념일로 지정

5. 필리핀 공화국

- 필리핀은 긴 식민지배에서 벗어났으나 경제적으로 미국의 완전한 소비 시장화되었으며, 정치적으로도 간접 지배

가. 마르코스의 장기 집권(1965~1986) 및 계엄령 선포

- 1965년 11월 대선에서 마카빠갈(Diosdado P. Macapagal) 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대통령은 집권 1기 효율적인 세제 개편과 대외 차관 유치로 국가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과감한 인프라 투자로 국가 경제 발전을 주도
- 마르코스 대통령은 1969년 12월 필리핀 사상 최초로 재선되었으나, 세계 경제의 하강과 맞물린 필리핀 경제의 침체, 빈부격차 심화, 부정부패 만연 등으로 인해 대중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개혁 요구가 분출하면서 정국 혼란이 지속
- 1972년 9월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가 전복 세력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 아래 계엄령을 선포하고 의회를 해산시킨 후, 행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는 1인 지배 체제 수립
-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사회(New Society) 건설’을 주창하고, 신사회운동당(KBL : Kilusang Bagong Lipunan, New Society Movement)을 기반으로 언론 장악과 선거 조작을 통해 1986년까지 장기 집권
- 1983년 8월 21일 니노이 아키노(Benigno S. Ninoy Aquino Jr.) 전 상원의원 암살 이후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자 미국이 마르코스에 대한 지지 철회

나. 1986년 제1차 시민혁명(People Power I)

- 마르코스 대통령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1986년 2월 7일 조기 선거를 실시하고 1986년 2월 16일 자신과 톨렌티노(Tolentino) 부통령의 당선을 발표
-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People Power’라 불리는 시민혁명 발발
 - 가톨릭 교계가 코라손 아키노(Corazon Aquino, 니노이 아키노 전 상원의원의 부인)를 지원하고 미국이 마르코스 대통령을 비판하자 1986년 2월 22일 엔릴레(Enrile) 국방장관과 라모스 군 부총사령관이 마르코스 반대 진영에 가담
- 1986년 2월 25일 아키노와 라우렐(Jose Laurel)이 마르코스의 당선 무효를 선언하고 각각 대통령 및 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마르코스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함에 따라 시민혁명(People Power I) 승리
- 아키노 대통령 이후 라모스(Fidel Ramos) 대통령 및 에스트라다(Joseph Estrada) 대통령이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

다. 2001년 제2차 시민혁명(People Power II)

-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부정부패, 국정운영 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보이자 제2차 시민혁명(People Power II) 발발
 - 상원의 탄핵 재판 시작 후 에스트라다는 스스로 사임, 2001년 1월 20일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 부통령이 대통령직 승계
- 제2차 시민혁명은 라모스·아키노 전 대통령 계열, 마카티 경영클럽(Makati Business Club) 중심의 경제계·가톨릭 교계·시민단체·재야 등 중산층의 지지와 참여로 전개되었으며, 마지막 순간 군 수뇌부의 에스트라다 진영 이탈로 성공

라. 아로요 정부

-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사임으로 2001년 1월 대통령직을 승계받은 아로요 대통령은 에스트라다 지지 세력이 벌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군·경 등을 동원한 강경 진압으로 정권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2001년 5월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이 상·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는 승리를 이끌어 일단 국민들의 신임을 확보
- 아로요 대통령은 2004년 5월 10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포(Fernando Poe) 후보를 112만 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6월 30일 취임
- 아로요 대통령은 800억 달러에 달하는 공공부채 누적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개발 10대 공약, 5대 경제개혁 패키지 등을 발표하고 8대 세수 증대 조치를 추진
- 2005년 이후에는 2004년 대선 결과 조작 의혹 및 가족의 비리 의혹 등으로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봉착
 -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에서 세 차례 탄핵안 상정 저지(2005.9., 2006.8., 2007.10.)
- 2007년 중국 차관 사업인 국가광대역통신망(NBN) 사업 및 북부철도 재건사업 관련 비리, 반군들에 의한 페닌술라 호텔 점거, 베네시아(Jose de Venecia) 하원의장과의 관계 악화 등 정치적 악재가 발생하며 아로요 대통령의 국정운영 추동력 저하
- 아로요 정부의 부정부패 의혹 및 국민들의 민심 이반으로 2010년 5월 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베니뇨 아키노(Benigno S. Aquino III) 상원의원 당선

마. 아키노 정부

- 2010년 5월 대선에서 아키노 자유당 상원의원이 부패 청산과 이를 통한 경제 성장 등 국가 혁신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정권교체 실현
- 아키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패 청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진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로요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임명한 공직자들을 사퇴시키는 한편, 비리 의혹이 제기된 관급 공사 계약을 파기하는 등 개혁 드라이브를 적극 전개
- ‘진실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는 등 개혁 과정이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아키노 대통령은 부패 청산과 광범위한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 2012년 5월 아로요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아키노 대통령의 부패 청산 작업을 방해해 온 코로나 대법원장 탄핵
- 2013년 5월 실시된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아키노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연합이 승리하여 상·하 양원에서 우위 점유
 - 아키노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 총선, 특히 가장 중요한 상원선거에서 여당연합이 승리하면서 아키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반 마련
- 아키노 정부는 필리핀의 열악한 인프라 개발을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민관협력사업(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 일자리 창출, 빈곤 감소 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여 임기 내 연평균 6.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도 거두었으나, 실업률 및 빈곤율 감소에는 실패하였고 인프라 구축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평가
- 2016년 5월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였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Roa Duterte)가 아키노 정부의 정책과 이념을 계승하는 마누엘 로하스(Manuel Araneta Roxas II) 여당 후보에게 승리

II

정 치

1. 행정부
2. 사법부
3. 정당 및 의회
4. 지방 행정
5. 정치 정세

1. 행정부

가. 대통령

- 피선 자격 : 선거 직전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상의 필리핀 태생 시민
- 선출 방법 : 국민 직접투표
- 임 기 : 6년 단임
- 유고 시 부통령이 잔여 임기 승계
 -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 유고 시에는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승계하되, 보궐선거 시까지 대행
- 현 대통령 :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Roa Duterte)
 - 필리핀 남부 다바오(Davao)시에서 20년 이상 검사와 시장 역임
 - 필리핀 역사상 첫 민다나오 출신 대통령

나. 부통령

- 피선 자격 : 대통령 피선 자격과 동일
 - 미국식 러닝메이트제와 유사하나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므로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음
- 임 기 : 대통령 임기와 동일, 1회 중임 가능
- 부통령 유고 시 대통령이 상·하원 의원 중에서 지명(상·하원 의원 과반수의 인준 필요)
- 현 부통령 : 마리아 로브레도(Maria Leonor Gerona-Robredo)

필리핀 역대 대통령

	성 명	소속 정당	재임기간
1대	아기날도(Emilio Aguinaldo)	-	1899.1. ~ 1901.3.
2대	케손(Manuel L. Quezon)	국민당	1935.11. ~ 1944.8.
3대	라우렐(Jose P. Laurel) *	칼리바피	1943.10. ~ 1945.8.
4대	오스메냐(Sergio Osmeña)	국민당	1944.8. ~ 1946.5.
5대	로하스(Manuel A. Roxas)	자유당	1946.5. ~ 1948.4.
6대	키리노(Elpidio R. Quirino)	자유당	1948.4. ~ 1953.12.
7대	막사이사이(Ramon F. Magsaysay)	국민당	1953.12. ~ 1957.3.
8대	가르시아(Carlos P. Garcia)	국민당	1957.3. ~ 1961.12.
9대	마카빠갈(Diosdado P. Macapagal)	자유당	1961.12. ~ 1965.12.
10대	마르코스(Ferdinand E. Marcos)	국민당	1965.12. ~ 1986.2.
11대	코라손 아키노(Corazon C. Aquino)	민주투쟁당	1986.2. ~ 1992.6.
12대	라모스(Fidel V. Ramos)	국민의 힘당	1992.6. ~ 1998.6.
13대	에스트라다(Joseph E. Estrada)	필리핀평민연합당	1998.6. ~ 2001.1.
14대	아로요(Gloria Macapagal-Arroyo)	국민의 힘당	2001.1. ~ 2010.6.
15대	아키노(Benigno S. Aquino III)	자유당	2010.6. ~ 2016.6.
16대	두테르테(Rodrigo Roa Duterte)	민주필리핀당	2016.6. ~ 현재

* 라우렐 정권은 일본의 괴뢰 정권이었으므로 재임기간 겹침

다. 내각

- 대통령이 임명하며, 직책에 따라 의회 인준위원회의 동의 필요

내각 명단(2019년 8월 기준)

소속	직위	성명
대통령실	수석장관 (Executive Secretary)	Salvador Medialdea
	대통령실 대변인 (Presidential Spokesperson)	Salvador Panelo (겸직)
	대통령실 국가안보 보좌관 (Presidential National Security Adviser)	Hermogenes Esperon, Jr.
	대통령실 법무수석 (Chief Presidential Legal Counsel)	Salvador Panelo (겸직)
	대통령실 평화과정 보좌관 (Presidential Adviser on Peace Process)	Carlito Guancing Galvez, Jr.
	대통령 특별보좌관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Jesus Melchor Quitain, Jr.
	내각 장관 (Cabinet Secretary)	Karlo Alexei Nograles
	대통령실 공보수석 (Secretary of Presidential Communications Office)	Martin Andanar
	대통령실 입법연락실장 (Head of Presidential Legislative Liaison Office)	Adelino Baguio-Sitoy
	대통령실 비서실장 (Head of Presidential Management Staff)	Ferdinand Cui, Jr. (대행)
	대통령실 해외진출근로자 보좌관 (Presidential Adviser for OFWs)	Abdulla Mama-O
	비사야스 비서관 (Presidential Assistant for the Visayas)	Michael Diño
	대통령실 경제 정보통신기술 보좌관 (Presidential Adviser on Economic Affairs and ICT)	Ramon Jacinto

소속	직위	성명
대 통 령 실	군사 보좌관 (Presidential Adviser on Military Affairs)	Arthur Tabaquero
	경제사회계획수석 (Secretary of Socio-Economic Planning)	Ernesto Pernia (겸직)
	대통령실 정치 보좌관 (Presidential Political Adviser)	공석
	대통령실 토착민 보좌관 (Presidential Adviser for Indigenous People)	Allen Capuyan
	주택도시개발위원장 (Chairman of the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ordinating Council)	Eduardo del Rosario
정 부 관 련 부 처	외교부 장관 (Secretary of Foreign Affairs)	Teodoro Locsin Jr.
	재무부 장관 (Secretary of Finance)	Carlos Dominguez III
	법무부 장관 (Secretary of Justice)	Menardo Guevarra
	농업부 장관 (Secretary of Agriculture)	William Dar (대행)
	공공사업도로부 장관 (Secretary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Mark Villar
	교육부 장관 (Secretary of Education)	Leonor Briones
	노동고용부 장관 (Secretary of Labor and Employment)	Silvestre Bello III
	국방부 장관 (Secretary of National Defense)	Delfin Lorenzana
	보건부 장관 (Secretary of Health)	Francisco Duque III
	통상산업부 장관 (Secretary of Trade and Industry)	Ramón López
사회복지개발부 장관 (Secretary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Rolando Joselito Bautista	

소속	직위	성명
정 부 관 련 부 처	농업개혁부 장관 (Secretary of Agrarian Reform)	John Rualo Castricones
	환경천연자원부 장관 (Secretary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Roy Cimatu
	내무지방자치부 장관 (Secretary of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Eduardo Año
	관광부 장관 (Secretary of Tourism)	Bernadette Romulo-Puyat
	교통부 장관 (Secretary of Transportation)	Arthur Tugade
	과학기술부 장관 (Secretar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tunato De la Peña
	예산관리부 장관 (Secretary of Budget and Management)	Wendel Avisado (대행)
	에너지부 장관 (Secretary of Energy)	Alfonso Cusi
정 부 위 원 회 및 청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Secreta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Gregorio B. Honasan
	국가경제개발청장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Ernesto Pernia (겸직)
	고등교육위원장 (Chairman of th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J. Prospero E. De Vera III
	메트로 마닐라개발청장 (General Manager of the Metro Manila Development Authority)	Danilo Lim
	민다나오 개발청장 (General Manager of the Mindanao Development Authority)	Nathaniel D. Dalumpines
	빈곤퇴치위원장 (Lead Convener of the National Anti-Poverty Commission)	Noel Kinazo Felongco
국가무슬림위원장 (Secretary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Muslim Filipinos)	Saidamen Pangarungan	

소속	직위	성명
정 부 위 원 회 및 청	기후변화위원장 (Head of Climate Change Commission)	Emmanuel de Guzman
	공기업관리위원장 (Chairman of Governance Commission for Government Owned and Controlled Corporations)	Samuel G. Dagpin Jr.
	재외국민위원장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Francisco Acosta
	위험약물위원장 (Chairperson of the Dangerous Drugs Board)	Catalino Salandanan Cuy
	기술교육·직능개발청장 (Director General of 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Isidro Samson Lapeña

라. 옴부즈맨(Ombudsman)

- 헌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7년 단임
- 총감(Ombudsman), 수석차감(Overall Deputy Ombudsman)과 각 지역(Luzon, Visayas, Mindanao) 담당 및 기능 분야(군대) 담당 차감 등으로 구성
 - 현 옴부즈맨 : 사무엘 마르티레스(Samuel R. Martires)
- 역할
 - 정부 관리들의 독직·부패를 조사하여 형사·민사·행정 소추 시행
 - 정부 내 비효율성과 독직·부패의 원인을 조사하여 개선책 권고
- 상주 옴부즈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내에서 옴부즈맨의 역할 대행
 - 수도권 정부기관 내의 상주 옴부즈맨은 총감이 임명
 - 지방 정부기관 내의 상주 옴부즈맨은 해당 지역 차감이 임명

마. 회계 감사원(Commission on Audit)

- 헌법에 규정된 최고 회계감사 기관으로, 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7년 단임
- 감사원장과 2명의 위원, 15개의 부서 및 14개의 지방사무소로 구성
 - 현 감사원장 : 미카엘 아가날도(Michael G. Aguinaldo)
- 역할
 - 정부 및 산하기관의 재무 상태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



2. 사법부

가. 대법원(Supreme Court)

- 대법원장 및 14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
 - 현 대법원장 : 루카스 베르사민(Lucas Bersamin)
- 대법원 판사는 필리핀 태생의 4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대법원 판사는 70세까지 임기 보장)
- 조약, 법률, 행정명령 및 사형선고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
- 모든 결정은 10명 이상의 대법관의 동의 필요

나. 고등법원(Court of Appeals)

- 고등법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50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1개의 고등법원이 수도에 소재
- 구속적부심, 영장 발급, 지방법원의 판결 심사

다. 지방법원

- 지역 법원 (Regional Trial Court)
- 수도권 법원 (Metropolitan Trial Court)
- 시 법원 (Municipal Trial Court in Cities)
- 읍 법원 (Municipal Trial Court)
- 시 순회 법원 (Municipal Circuit Trial Court)

라. 특별법원

- 샤리아(이슬람 율법) 구역 법원(Sharia District Court)
- 샤리아 순회 법원(Sharia Circuit Court)
- 공직범죄 심판 법원(Sandiganbayan)
- 국세심판소(Court of Tax Appeals)

3. 정당 및 의회

가. 정당

(1) 역사 및 특징

• 역사

- 1946년 독립 후 국민당(Nacionalista Party)과 자유당(Liberal Party)의 양당 체제가 구축되었으나, 20여 년(1965~1986)의 마르코스 대통령의 장기 집권 과정에서 전통 정당이 몰락하고 정당제도 자체의 의미 상실
- 1986년 코라손 아키노 정부 출범 이후, 선거 등 필요에 따라 정당이 급조되고 정치인 개인의 이해나 친분 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는 등 정당정치의 기반 미확립

• 특징

- 선거나 정국 운영에서 정당의 영향력 미미
-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 소수 유력 인물(가문)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정치 및 사회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정당은 정강·정책 중심의 '정책 정당'이 아닌 유력 인물(가문) 위주의 '인물 정당' 형태로 운영
- 각종 선거가 정책 대결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지명도·인기 등에 의해 판가름나는 양상
 - ※ 영화배우 출신인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개인적 인기를 기반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상·하원의원, 주지사 등에 영화배우, 방송인, 운동선수 출신이 다수 선출
- 정당별 정책 노선 차이가 없어 필요에 따른 정당 간 이합집산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여 소속 정당 교체도 빈번
 - ※ 상원은 소속 정당이 아닌 의장 선출 시 찬반 여부로 다수파 및 소수파로 구분되며, 하원 역시 대부분 당적에 관계없이 여권에 합류하는 경향

(2) 여 당 : 민주필리핀당

(PDP-Laban : Partido Demokratiko Pilipino-Lakas ng Bayan)

- 의석 수 : 상원 5석, 하원 84석
- 총 재 : 아킬리노 피멘텔(Aquilino Pimentel III) 상원의원(전 상원의장)
- 1982년 피멘텔(Aquilino Pimentel, Jr.) 상원의원이 민다나오를 기반으로 창당한 PDP당과 1978년 아키노(Benigno Aquino, Jr.) 전 상원의원이 창당한 Lakas ng Bayan당이 1986년 합당하여 생긴 정당으로,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띤 개혁 정당

(3) 그 밖의 주요 정당

- 자유당(LP : Liberal Party)
 - 의석 수 : 상원 3석, 하원 18석
 - 총 재 : 프란시스 빵일리난(Francis Pangilinan) 상원의원
 - 1946년 로하스(Roxas) 대통령이 만든 전통 진보 정당
 - 아키노 전 대통령 집권 이후, 2016년 대선에서 자유당 로하스(Mar Roxas) 후보가 낙선하면서 재집권에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나, 부통령 후보인 로브레도(Maria Leonor Gerona Robredo)가 당선, 부통령직 수행 중
- 국민연합당(NPC: Nationalist People's Coalition)
 - 의석 수 : 상원 3석, 하원 36석
 - 총 재 : 에두알도 코후앙코(Eduardo Cojuangco, Jr.)
 -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친족이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사촌인 기업인 코후앙코가 1992년 대선 출마를 위해 만든 정당으로, 소속 의원 대다수가 마르코스 대통령 당시 집권당인 신사회운동당(KBL: New Society Movement) 출신
- 국민당(NP : Nacionalista Party)
 - 의석 수 : 상원 4석, 하원 42석
 - 총 재 : 마누엘 빌라르(Manuel Villar)

- 1907년 설립되어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으로, 마르코스 독재 이전까지는 유력 정당이었으나 자유당(LP)과 국민연합당(NPC)이 분파해 나가면서 쇠락

- 통합국민연합 (UNA : United Nationalist Alliance)

- 의석 수 : 상원 1석

- 총 재 : 난시 비나이(Nancy Binay) 상원의원

-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과 비나이(Jejomar Binay) 전 부통령 등이 2013년 총선과 2016년 대선을 위해 결성한 선거연합 정당

- 국민통합당 (NUP: National Unity Party)

- 의석 수 : 하원 25석

- 총 재 : 엘피디오 바르자가(Elpidio Barzaga) 하원의장

- 2011년 국민의 힘 연립당의 일부가 분리하여 창설한 정당

- 필리핀 민주당(LDP : Laban ng Demokratikong Pilipino)

- 의석 수 : 상원 1석, 하원 2석

- 총 재 : 후안 앙가라(Juan Edgardo Angara) 상원의원

-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 당시 집권당이었으나 아키노가 1992년 대선에서 필리핀 민주당 후보가 아닌 국민의 힘 연립당의 라모스를 지지하면서 집권에 실패, 같은 해 총선 후 소속 의원 다수가 국민의 힘 연립당에 합류하여 다수당 지위 상실

나. 상원

(1) 개요

- 필리핀 상원은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35세 이상의 입후보자 중에서 득표 순으로 선출된 24명으로 구성
- 상원의원 수 : 24명

- 3년마다 12명씩 개선(2019년 5월, 12명 개선)
- 임기는 6년이며, 1회 중임 가능

(2) 주요 권한

- 법률안 제안, 심의 및 의결
- 대통령 및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사 결정권
- 계엄령의 연장 및 취소
- 선전포고 동의
- 조약 체결 및 사면 동의

(3) 구성

- 상원의장 : 비센테 소토(Vicente C. Sotto III) (NPC)
- 상원부의장 : 랄프 렉토(Ralph G. Recto) (LP)
- 다수파 원내대표 : 후안 미구엘 주비리(Juan Miguel F. Zubiri) (NPC)
- 소수파 원내대표 : 프랑클린 드릴론(Franklin M. Drilon) (LP)
- 위원회 : 40개
- 여야 구성 : 다수파 의원 20명, 소수파 의원 4명

다. 하원

(1) 개요

- 25세 이상의 입후보자에게 피선거권 부여
- 하원의원 수 : 헌법상 250명 이상으로만 규정
 - 소선거구제에 입각한 1선거구 1인 선출(지역 대표) 및 정당·직능단체 대표
 - 2019년 5월 중간선거로 지역구 의원 241명, 정당·직능단체 대표 59명이 선출될 예정이었으나, 부정선거로 인한 낙선과 지역구 분할로 인해 현재 299명 임석 중
- 임기는 3년이며, 2회 중임 가능

(2) 주요 권한

- 법률안 제안, 심의 및 의결
- 예산안, 공공채무 관련 법안
 - 특정 지역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심의
- 탄핵소추안 발의권

(3) 구성

- 의장 : 알란 피터 카예타노(Alan Peter S. Cayetano) (Nacionalista)
- 부의장 : 두테르테(Paolo Duterte) (HTL)
 - 에르난데스(Ferdinand Hernandez) (PDP-LBN)
 - 에스쿠데로(Evelina Escudero) (NPC)
 - 레가르다(Loren Legarda) (NPC)
 - 에스트레야(Conrado Estrella, III) (Abono Party-List)

피차이(Prospero Pichay, Jr.) (Lakas)
 푸노(Roberto Puno) (NUP)
 비야누에바(Eduardo Villanueva) (CIBAC)
 곤살레스(Aurelio Gonzales, Jr.) (PDP-LBN)
 피멘텔(Johnny Pimentel) (PDP-LBN)
 비야푸에르테(Luis Raymund Villafuerte) (NP)
 아부(Raneo Abu) (NP)
 곤살레스(Neptali Gonzales, II) (PDP-LBN)
 페르난데스(Dan, Fernandez) (PDP-LBN)
 아레나스(Rose Marie Arenas) (PDP-LBN)
 마르콜레타(Rodante Marcoleta) (SAGIP Party-List)
 가르시아(Pablo Garcia) (PDP-LBN)
 오아미날(Henry Oaminal) (NP)
 하타만(Mujiv Hataman) (LP)
 산토스-렉토(Vilma Santos-Recto) (NP)
 사베야노(Deogracias Savellano) (Nationalista-Bileg Party)
 로메로(Mikee Romero) (I-Pacman)

- 여권 원내대표 : 마르틴 로무알데스(Martin Romualdez) (Lakas)
- 야권 원내대표 : 비엔베니도 아반테(Bienvenido Abante Jr.) (Asenso Manileño)
- 위원회 : 60개, 특별위원회 15개

4. 지방 행정

가. 기본 행정 단위

- 지방자치단체장은 3년마다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3회 중임 가능
- 주(Province) : 81개
- 시(City) : 145개
-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 : 1,489개
- 바랑가이(Barangay) : 42,044개
- (* 2018년 4월 기준, 필리핀 통계청)

나. 17개의 지방 구역(Regions)

- 중앙정부가 행정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행정 단위는 아니며, 지방 행정 단위는 기본 행정 단위와 마찬가지로 주, 시(읍), 동으로 구성

지역 코드	지역 명	지역 코드	지역 명
1	Region I (Ilocos)	10	Region X (Northern Mindanao)
2	Region II (Cagayan Valley)	11	Region XI (Davao Region)
3	Region III (Central Luzon)	12	Region XII (Soccsksargen)
4	Region IV-A (CALABARAZON)	13	National Capital Region
5	Region V (Bicol)	14	Cordillera Administrative Region
6	Region VI (Western Visayas)	15	Bangsamoro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7	Region VII (Central Visayas)	16	Region XIII (Caraga)
8	Region VIII (Eastern Visayas)	17	MIMAROPA Region
9	Region IX (Zamboanga Peninsula)		

* 2018년 4월 기준, 필리핀 통계청

다. 특별지역(17개 지방 구역 중 3개)

- 수도 지역(National Capital Region, Metro Manila, 인구 1,280만 명)
 - 17개 시로 구성 : Manila, Caloocan, Makati, Mandaluyong, Pasay, Pasig, Quezon, Muntinlupa, Las Piñas, Marikina, Parañaque, Valenzuela, Malabon, Taguig, Navotas, Pateros, San Juan
- 코르디예라 행정 지역(Cordillera Administrative Region, 인구 150만 명)
 - 6개 주와 1개 시로 구성 : Abra, Apayao, Benguet, Ifugao, Kalinga, Mountain Province(이상 주), Baguio(시)
- 민다나오 이슬람 자치 지역(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270만 명)
 - 2019년 1월 방사모로 조직법 국민투표 비준에 따라 방사모로 자치 지역(Bangsamoro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으로 전환 중
 - 5개 주와 1개 시로 구성 : Sulu, Tawi-Tawi, Lanao del Sur, Maguindanao, Basilan(이상 주), Marawi(시)
 - 1차(2019.1.21) 및 2차(2019.2.6)에 걸친 비준 투표 결과, 기존의 이슬람 자치 지역(마라위 시, 라미탄 시를 포함한 마긴다나오, 라나오 델 수르, 바실란, 솔루, 타위타위), 코타바토 시, 북코타바토 주 63개 바랑가이가 방사모로 자치 지역의 관할 구역으로 결정

라. 지방의회(3년마다 선거로 선출)

- 주 의회 : 10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
- 시·지방자치단체 의회 : 10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
- 바랑가이 운영위원회 : 6명의 의원으로 구성

5. 정치 정세

가. 개 관

- 필리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동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경제수준과 민주주의 발전을 유지하였으나, 마르코스 대통령의 장기 집권 기간의 부정부패로 국가 발전이 정체
- 1986년 시민혁명 이후 민주화를 달성하였으며, 2010년 6월 출범한 아키노 신정부는 부정부패 청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상정하고 국가 개혁을 추진 중

나. 최근 정치 정세

- 2016년 5월, 두테르테 다바오 시장이 부정부패 및 범죄 척결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질 향상과 다바오 시장 재직 시 다바오 시를 범죄율이 낮고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한 경력을 제시하며 대선에서 승리
-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우선 국정과제로 마약 퇴치를 선정하고 경찰을 동원한 대대적인 마약 단속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나, 마약 단속 과정에서 수천여 명이 살해됐다는 논란 존재
 - 두테르테 정부는 범죄·마약과의 전쟁의 제도적 장치로 사형제 재도입을 적극 추진 중
- 방사모로 포괄협정* 이행을 위한 기본법안이 헌법 불합치 논란 속에 결국 아키노 정부 임기 내에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나, 2018년 7월 23일 방사모로 포괄협정을 바탕으로 한 방사모로 조직법이 의회에서 가결(2018.8.10 시행)

- 방사모로 조직법에 따른 1·2차 비준 투표 결과 방사모로 자치지역의 관할 구역이 결정되고, 2019년 2월 80명 규모의 방사모로 전환위원회(BTA : Bangsamoro Transition Authority)를 구성, 임시정부로서의 기능 수행
 - *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에게 더 많은 자치권을 보장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여 아키노 정부가 체결한 평화협정
- 두테르테 정부는 필리핀의 인프라 구축과 고도성장을 위해 해외 지원 및 투자를 활용하여 수도권 및 지방 도시의 교통망 개선 사업에 역점을 둔 ‘두테르테노믹스’를 발표하고 추진

민다나오 문제

1. 역사적 배경

- 민다나오 섬은 15세기부터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한 지역으로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였으나, 미국 식민 당국 및 독립 후 필리핀 정부가 가톨릭교도를 적극 이주시킨 결과 현재 이슬람교도는 민다나오 인구의 25% 수준(약 500만 명)
- 1970년대 초 필리핀대학 정치학 강사 출신의 누르 미수아리(Nur Misuari)가 모로민족해방전선(MNLF :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을 결성하고 민다나오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대 정부 투쟁 개시(이후 40여 년 동안 15만 명의 인명피해 발생)
- 1976년 리비아의 중재로 필리핀 정부와 MNLF는 ‘트리폴리 협정(Tripoli Agreement)’을 체결, 무슬림 지역 13개 주와 9개 시를 포함한 자치지역(RAG) 설정
-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민다나오 자치지역 조항을 포함시켰고 1989년 13개 주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4개 주(Lanao del Sur, Maguindanao, Sulu, Tawi-Tawi)만 민다나오 이슬람 자치지역(ARMM :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으로 공식 출범(1990.11.6)
 - 2001년 8월 자치지역 확대 주민투표 결과 마라위(Marawi) 시와 바실란(Basilan) 주 추가

2. 정부와 MNLF 간 평화협정 체결

- 라모스 정부는 이슬람회의기구(OIC) 및 인도네시아의 중재로 1993년 10월 이래 MNLF와 공식회의 3차례, 혼성위원회 8차례 개최
- 1996년 6월 23일 필리핀 정부와 MNLF는 평화협정안에 합의하고 1996년 9월 2일 마닐라에서 평화협정에 정식 서명
- 1996년 평화협정에 따라 반군 지도자인 누르 미수아리가 ARMM 주지사에 취임하였으나, 공금 횡령 및 유용, 호화생활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비난 고조로 재선에 실패

【평화협정 주요 내용】

- 평화·개발특별구역(ZOPAD : Special Zone of Peace and Development) 지정
 - 1976년 트리폴리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민다나오 이슬람 지역 14개 주와 9개 시를 평화·개발특별구역으로 선포

민다나오 이슬람 지역

14개 주	Maguindanao, Sula, Tawi-Tawi, Lanao del Sur, Lanao del Norte, Zamboanga del Sur, Zamboanga del Norte, South Cotabato, North Cotabato, Davao del Sur, Sultan Kudarat, Basilan, Sarangani, Palawan
9개 시	Zamboanga, Pagadian, Dipolog, Dapitan, Marawi, Iligan, Cotabato, General Santos, Puerto Princesa

- 남부 필리핀 평화·개발위원회 설치
 - ZOPAD의 평화 정착과 개발 관장(3년간의 한시 기구)
 - 의장, 부의장, 기독교 대표, 회교 대표 및 Lumad 부족 대표 등 5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
- 자문의회 구성
 - ZOPAD 지역의 주지사, 시장, 각 종파 등의 대표 등 총 81명으로 구성(44명은 MNLF 추천)
- MNLF 요원의 필리핀 군·경으로의 편입
- Special Regional Security Force 설치, ZOPAD 지역의 치안 담당

3.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의 무장투쟁 지속

- 1979년 하심 살라맛(Hashim Salamat)이 MNLF에서 이탈해 창설한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은 이슬람 지역 내 완전한 독립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정부와 MNLF 간 체결된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무장투쟁 지속
- 필리핀 정부는 MILF와 2001년 6월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상 진행
 - 2005년 9월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열린 협상에서 이슬람 자치정부(BJE) 설치에 관한 합의각서(MOA)에 합의하였으나 2008년 8월 서명 직전에 이슬람 자치정부의 위헌 소송 제기로 무산
 - 이에 불만을 품은 MILF 과격세력이 민간인 마을들을 공격하여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MILF와의 무력충돌 격화
 - 필리핀 정부가 합의각서 폐기 선언 후, 'MILF의 무장해제, 조직 해체, 사회 복귀 후 협상 추진'을 천명하고 MILF 과격세력 추적에 주력하면서 평화협상은 한동안 재개되지 못하고 공전

4. 방사모로 조직법 통과 및 방사모로 전환위원회 출범

- 아키노 대통령은 임기 내 평화협상 타결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취임 후 2011년 2월부터 MILF와의 공식 협상 재개
 - 2012년 10월 15일 필리핀 정부와 MILF는 민다나오 자치정부 수립의 기본 원칙을 담은 '방사모로 기본협정(FAB : Framework Agreement on the Bangsamoro)'에 서명
- 아키노 대통령은 2016년 임기 만료 전까지 ARMM을 대체하는 새로운 방사모로 자치 정부를 출범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MILF측과 협상
 - 2013년 4월 자치정부 기본법 성안을 위한 과도위원회 출범
 - MNLF 분파(Misuari 추종 세력)는 정부와 MILF 간 평화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3년 9월 삼보앙가(Zamboanga)를 공격하여 다수의 사상자 발생
- 2014년 3월 27일 필리핀 정부와 MILF은 방사모로 포괄협정(Comprehensive Agreement on the Bangsamoro)을 체결하고, 방사모로 기본법안(BBL : Bangsamoro Basic Law)을 마련하여 2014년 9월 의회에 제출
 - 2015년 1월 이슬람 반군세력이 필리핀 경찰 44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마마사파노(Mamasapano) 사건이 발생하면서 MILF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데다, 방사모로 기본법안의 헌법 불합치 논란이 계속되어 아키노 대통령 임기 내 법안 통과 실패
- 2018년 7월 필리핀 정부와 MILF 간 평화협상으로 체결된 방사모로 포괄협정의 이행을 위한 '방사모로 조직법(BOL : Bangsamoro Organic Law)'이 필리핀 상·하원 통과
- 방사모로 조직법의 시행을 위해 이슬람 자치지역 및 인근 지역 중 방사모로 지역으로의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에서의 비준 투표 실시
 - 투표 결과 방사모로 조직법 비준
- 1차(2019.1.21)와 2차(2019.2.6)에 걸친 비준 투표 결과, 기존의 이슬람 자치지역(마라위시, 라미탄시를 포함한 마긴다나오, 라나오 델 수르, 바실란, 솔루, 타위타위), 코타바토시, 북 코타바토주 63개 바랑가이(Barangay)가 방사모로 자치지역의 관할 구역으로 결정
- 필리핀 정부는 방사모로 조직법 비준을 통해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을 포함한 필리핀 정부와 민다나오 이슬람 세력 간 분쟁 종식 기반 마련
 - 기존의 이슬람 자치지역과 달리 필리핀 중앙정부의 일부 예산 자동 지원 및 특별발전 기금 확보로 향후 방사모로 자치지역 균형 발전의 발판 마련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9년 2월 80명 규모의 방사모로 전환위원회(BTA : Bangsamoro Transition Authority)와 임시수반을 임명하여 방사모로 전환위원회가 방사모로 지역의 임시정부 기능을 하도록 조치
 - 방사모로 전환위원회는 '전환 마스터플랜(2019.2.~2022.7.)'의 승인 및 이행, 방사모로 마스터 개발 계획 작성 및 방사모로 주정부의 주요 공직자 임명 등 역할 수행 예정

방사모로 자치지역 관할 구역



III

외교

1. 외교정책 기조
2. 주요국 및 아세안과의 관계
3. 수교국 및 공관 현황

1. 외교정책 기초

가. 외교정책의 목표(Philippine Foreign Service Act of 1991)

-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한 국가안보 유지 및 제고
-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외교 강화
- 필리핀인 해외근로자(OFWs : Overseas Filipino Workers)의 권익 보호

나. 8대 외교정책 방향

- 아시아 안보 및 경제발전에 중요한 미국, 일본, 중국과의 관계 중시
- 아세안과의 관계 속에서 필리핀의 외교정책 결정
- 이슬람권과의 관계 중시
-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다자협력 및 지역협력 중시
- 도서국가로서 해양영토 주권을 포함한 국가 영토주권 확보
-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 외국인 관광객 유치
- 필리핀인 해외근로자(OFWs)의 국가 경제 및 사회 안정에의 역할 중시

2. 주요국 및 아세안과의 관계

가. 미국

- 필리핀은 역사적으로 미국과 특수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독립 이후 거의 전 시기에 걸쳐 대미 관계 중심의 외교정책 유지
 - 미국과의 동맹은 필리핀 안보의 기본 축이며, 필리핀은 미국의 역대 군사·정치·경제적 존재가 지역 안보에 긴요하다고 인식
- 냉전 초기 필리핀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한 미국은 1951년 필리핀·미국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을 체결하고, 수빅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 등을 설치하고 주둔하며 필리핀에 군사·경제 원조를 제공
 - 필리핀 역시 대미 관계 유지와 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지정
- 마르코스 정권 붕괴로 이어진 1986년 시민혁명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반미주의가 급부상, 미군의 필리핀 주둔 반대운동이 확산되어 1992년 11월 결국 주필리핀 미군이 철수하였으나, 이후에도 필리핀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협력 관계 유지·강화에 주력
 - 1999년 필리핀·미국 방문군지위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 체결로 미국의 원격 안보 지원 및 양국 간 연합훈련의 법적 기반 마련
 - 상호방위위원회 개최와 2000년 이래 필리핀·미국 연례 연합훈련 실시 등 안보대화 및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안보협력 강화
- 2001년 9·11 테러 이후 대테러 전쟁에 대한 아로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1992년 미군 철수 후 소원해졌던 양국 안보협력 관계 완전 복원
 - 2002년 2~7월 아부 사야프(Abu Sayyaf) 반군 소탕을 위한 필리핀·미국 연합훈련 실시
 - 2002년 11월 필리핀·미국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 2003년 5월 아로요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시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필리핀을 주요 비NATO 동맹국으로 지정
- 2003년 10월 부시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간 군사안보 협력 관계 강화

- 2010년 출범한 아키노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로 분쟁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미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미국 역시 대아시아 전략적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며 양국 관계는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흥기 맞음

- 2011년 11월 필리핀·미국 상호방위조약 6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한 「마닐라 선언」으로 양국은 동맹의 영역을 지역안보까지 확대했으며, 미국은 대 필리핀 안보 공약 재확인

- 필리핀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최소 신뢰 방위능력(minimum credible defense posture)’을 구축한다는 입장이며 양국은 외교·국방장관회의(2+2 회의), 필리핀·미국 전략대화 설치 등을 통해 변화된 안보 환경에서의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 모색

- 2014년 4월 필리핀·미국 양국은 국방협력증진협정(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 필리핀 내 합의구역에 대한 미군의 ▲순환적 접근 및 사용 ▲군사 장비, 물자 및 자재 등 사전 배치 가능 ▲시설 구축, 개량 및 보수 허용

※ EDCA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의가 대법원에 제기되어 EDCA 이행이 지연되었으나, 2016년 1월에 합헌 결정

- 2016년 출범한 두테르테 정부는 자주외교를 표방하는 가운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통적 맹방인 미국과의 관계 관리
- 두테르테 정부의 마약사범에 대한 초법적 처형에 관해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반대 입장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유화적 태도를 보임

- 2017년 필리핀·미국 합동군사훈련 규모는 2016년에 비해 축소되었으나 2018년은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래 최대 규모인 8,000명으로 확대

- 2017년 5월 마라위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대테러용 무기 및 정찰기와 대테러 작전을 위한 첩보를 제공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에 대한 재평가 분위기 확산
- 2018년 기준, 미국은 필리핀의 제3의 교역 상대국이자 주요 투자국
 - 교역량 : 184억 달러 (수출 106억 달러, 수입 78억 달러)
 - 투 자 : 1.6억 달러 (출처 : 교역량은 IMF, 투자액은 필리핀 중앙은행)

나. 일본

-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미국·일본 안보동맹의 틀 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2011년 일본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정
 - 2015년 8월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 및 9월 일본 방위안보 법안 의회 통과 시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지지
- 두테르테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두테르테 대통령의 일본 방문(2016.10., 2017.10., 2019.5.)과 아베 총리의 필리핀 방문(2017.1., 11.)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필리핀·일본 정상외교 실시
 -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양 분야 안전보장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일본은 필리핀에 해양순시선을 공여하고 해상경비대 공동훈련을 진행하는 등 안보·군사 협력도 강화 추세
- 2018년 기준, 일본은 필리핀의 제1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국이며 제2의 교역 상대국이자 주요 투자국
 - 교역량 : 198억 달러 (수출 94억 달러, 수입 104억 달러)
 - 투 자 : 2.18억 달러 (출처 : 교역량은 IMF, 투자액은 필리핀 중앙은행)
 - 일본은 필리핀의 대외원조(ODA) 수원 총액의 약 46%(출처 :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를 제공하는 등 2차 대전 시 필리핀을 점령했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 경주

- 일본은 2006년 이래 필리핀 민다나오 이슬람 반군 지역의 사회경제 인프라 개발을 위해 1.5억 달러 이상을 ODA로 지원하는 한편, 민다나오 평화협상 지원을 위해 International Monitoring Group과 Contact Group에도 참여 중
- 2003년 12월 양국은 FTA를 포함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에 합의, 2008년 10월 필리핀 상원의 비준 동의에 따라 2008년 12월 발효

다. 중국

- 필리핀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선린정책 추진에 따라 베트남 공산화 직후인 1975년 6월 대 중국 관계 정상화
- 아키노 정부 초기 필리핀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 하였으나, 2011년 3월 Reed Bank 분쟁, 2012년 4월 Scarborough Shoal (황암도) 분쟁 등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의 강경정책에 대한 위기감과 반중 감정이 고조되면서 대 중국 정책의 방향 전환
 - 2013년 1월 필리핀은 중국을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중재재판에 제소 하여 2016년 7월 승소
- 두테르테 정부 출범 이후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도 중재재판 결과의 언급을 자제하며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노력
 - 2016년 10월 두테르테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통해 총 240억 달러 규모의 차관 및 투자를 유치했으며, 2012년 이후 중국이 금지했던 필리핀 어민들의 남중국해 내 조업도 재개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8년 4월 보아오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남중국해 내 자원 공동탐사 관련하여 논의
 -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여전히 양국 관계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

- 2018년 5월 중국이 점유한 남사군도 내 필리핀령 인공섬에 지대공·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되었다는 언론 보도 후 두테르테 대통령의 대 중국 유화정책에 대해 반발 여론이 형성되었으나,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의 미사일은 필리핀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자신의 정책을 강변
- 2018년 기준, 중국은 필리핀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주요 투자국
 - 교역량 : 304억 달러 (수출 89억 달러, 수입 215억 달러)
 - 투 자 : 1.98억 달러 (출처 : 교역량은 IMF, 투자액은 필리핀 중앙은행)

남중국해 문제

1. 배경

- 남중국해 보르네오 섬 북쪽에 위치한 44개 도서와 400여 개 산호초로 구성된 남사군도 (Spratly Islands, 해역 22만km)에 대해 베트남,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유권 주장(지리적으로는 필리핀이 가장 인접)
 - 남사군도에 풍부한 석유 및 가스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유권 분쟁 촉발
 - 영유권 주장국들은 경쟁적으로 남사군도에 군대를 파견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중국과 베트남은 두 차례(1974.1., 1988.3.) 무력 충돌
- 200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행동 선언이 채택되어 남중국해 문제의 다자적 접근에 진전 도출

2.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

- 필리핀은 남사군도가 필리핀의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 포함한다고 주장
 - 필리핀은 남사군도의 Pagasa 섬 등 7개 도서(Kalayaan 군도) 및 3개 산호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군사력의 한계로 Pagasa 섬 외의 도서에 파견된 군대 규모는 상징적 수준

남중국해 주변국 영유권 분쟁 지역



3.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

- 중국이 1994년 말부터 남사군도 내 미스치프 환초(Mischief Reef)에 어민 대피소 명목의 시설을 설치하면서 양국 간 분쟁이 표면화되었는데, 1995년 8월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분쟁 해역의 평화-건설적 사용에 합의한 필리핀-중국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일단 종결(중국은 현재까지 미스치프 환초 점유)
- 2005년 8월, 중국 석유공사는 필리핀 및 베트남의 석유공사와 공동 탐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까지 해역에 대한 과학 조사 시행

- 취임 초기에 아키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남중국해 문제의 언급을 자제해 왔으나, 2011년 3월 Reed Bank 인근에서 중국 군함이 필리핀 과학조사선에게 퇴거 명령 및 중국의 허가 없는 조사 중지를 요청하면서 적극 대응 방침으로 선화
 - 필리핀이 영국 Forum Energy사와 공동으로 Reed Bank 부근의 가스지대에 대한 지질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여타국과의 자원 공동개발 가능성을 시사하자 중국이 항의
 - ※ Reed Bank는 필리핀 팔라완 주에서 약 85해리, 중국 본토에서 약 595해리 떨어진 해역으로, 필리핀 정부가 천연자원 개발을 추진(약 2.4조 입방피트 상당의 천연가스 매장 추정)
- 2012년 4월 Scarborough Shoal(황암도) 해역에서 필리핀 어선과 중국 공선이 대치하면서 양국 간 남중국해 분쟁이 다시 격화되었으며, 중국은 해감선 등을 지속적으로 파견하며 필리핀 어선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관할권의 기정사실화 시도
 - ※ 2009년 3월 필리핀이 영해기선법 개정을 통해 남사군도 일부 및 Scarborough Shoal(필리핀 본토에서 약 124해리, 중국 본토에서 약 472해리 거리)을 자국령으로 포함시키자 중국이 외교적으로 항의
- 2013년 5월 필리핀이 점유 중인 남사군도 내 Ayungin Shoal(Second Thomas Reef)을 둘러싸고도 양국 간 긴장 고조
- 필리핀은 중국과 협의를 통한 남중국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자 2013년 1월 남중국해 문제를 유엔 해양법협약상 분쟁 해결 절차인 중재재판에 제소하여 중국의 9단선(9-dash-line) 주장의 국제법 합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
 - 중국은 재판 불참 입장을 견지하며 필리핀의 중재재판 철회를 압박
 - 중재재판소는 2016년 7월 12일 중국이 역사적 권원을 인용하여 남중국해 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는 소위 '9단선'을 불인정하는 등 필리핀의 승소를 결정하였으나 중국은 재판 결과 불수용
- 필리핀은 중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면서도 아세안의 단결된 입장을 바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남중국해 행동 규칙을 아세안과 중국이 조기에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
- 2018년 4월 중국이 점령한 남중국해 내 필리핀령 인공섬에 군 수송기가 주기한 사진이 보도되고, 같은 해 5월에는 지대공·지대함 미사일까지 배치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대 중국 유화설에 대한 비판 여론 지속
 -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히려 중국이 필리핀을 지켜주기로 했다고 공언하면서 정책의 타당성 주장
- 2018년 11월 시진핑 대통령은 중국 주석으로서 13년 만에 필리핀을 방문하여 필리핀과 31개 항과 29개 합의문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석유·가스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하였으며, 해양 석유·가스 탐사와 광물, 에너지 및 기타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등 해양협력을 논의하기로 합의

- 2019년 6월 남중국해 필리핀 EEZ 내 Reed-Recto Bank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정박 중이던 필리핀 어선에 충돌한 후, 침몰하는 필리핀 어선의 승조원 22명을 방치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필리핀 국방장관이 이를 뺑소니 행위로 규정하면서 양국 간 긴장 재점화
- 2019년 7월에는 스프래틀리(Spratly) 군도 필리핀 EEZ에서 100척 이상의 대규모 중국 어선단이 스프래틀리 군도 Pag-asa(Thitu섬) 해역에서 불법 조업 활동을 벌이다가 발각된 데 이어, 중국 군함이 타위타위(Tawi-Tawi) 섬 시부투(Sibutu) 해협을 사전 허가 없이 무단 통과하면서 중국에 대한 비판 고조
- 2019년 8월 루손섬 북부 일로코스노르떼(Ilocos Norte) 인근과 루손섬 남부 비콜(Bicol) 근처 필리핀 EEZ에서 중국 탐사선이 항행하는 것이 포착되어 비난 가중
-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에 외교적인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중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 조사선의 필리핀 해역에서의 조사 활동 금지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9년 8월 중국 방문 시 2016년 중재재판 결과를 시진핑 주석에게 언급하고, 중국 선박의 필리핀 어선충돌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 및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중국 승조원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시진핑 주석은 중국 입장을 고수
-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재 판정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

라. 아세안

- 필리핀은 아세안의 창립회원국으로서 아세안을 외교의 지주로 삼아 지역안보 증진 및 통상 증대 도모
- 정치적으로는 동남아비핵화지대 조약(1995년 아세안 정상회의 시 서명) 등을 통한 아세안의 확대·발전 추구 및 역내 유일의 정부 간 안보 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중요성 강조
- 경제적으로는 2015년을 목표로 추진된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추진
- 필리핀은 2007·2017년 아세안 의장국, 2009~2012년 미국·아세안 대화조정국 역할을 수행했으며, 2018년부터 3년간 중국·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 활동

3. 수교국 및 공관 현황(2018년 기준)

가. 수교국 현황(총 192개국)

아시아 (29)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북한, 파키스탄, 한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아메리카 (35)	안티구아바바다,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다,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51)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나와,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레아, 적도기니,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셔스,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콩고공화국,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오세아니아 (13)	호주, 쿡제도, 피지, 마셜제도, 나우루, 뉴질랜드,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유럽 (50)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코소보,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바티칸
중동 (14)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나. 재외공관 현황

- 대사관 : 60개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기에, 브라질, 브루나이, 캄보디아, 캐나다, 칠레, 중국, 체코, 이집트,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바티칸, 일본, 요르단, 케냐, 한국,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리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얀마,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위스, 시리아, 동티모르,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베트남

- (총)영사관 : 22개

- (호주) 시드니, (캐나다) 캘거리, 토론토, 밴쿠버, (중국) 충칭, 광저우, 홍콩, 마카오, 상하이, 샤먼, (이탈리아) 밀라노, (일본) 오사카, (사우디아라비아) 젯다, (대만) 타이중, 카오슝,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미국) 시카고, 괌, 호놀룰루,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 국제기구 대표부 : 12개

- ASEAN(자카르타), EU(브뤼셀), IAEA(빈), IMO(런던), Preparatory Commission for CTBTO(빈), UN(제네바), UN(뉴욕), UN(빈), UNESCAP(방콕), UNESCO(파리), UNIDO(빈), WTO(제네바)

다. 필리핀 주재 외국공관 현황

- 상주 대사관 : 65개 (비상주 : 57개)

상주 (65)	비상주 (57)
<p>양골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벨기에, 브라질, 브루나이, 캄보디아, 캐나다, 칠레, 중국, 체코, 덴마크, 이집트,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쿠웨이트, 라오스, 리비아, 말레이시아, 몰타, 멕시코, 모로코, 미얀마,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필라우,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태국, 동티모르, 터키,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바티칸, 베네수엘라, 베트남</p>	<p>방콕(북한), 베이징(에리트리아, 몰타, 콩고 공화국, 세이셸, 트리니다드토바고), 하노이(아르메니아, 불가리아), 자카르타(아제르바이잔, 크로아티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포르투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튀니지), 쿠알라룸푸르(알제리, 쿠바, 핀란드, 감비아, 케냐, 나미비아, 팔레스타인, 수단, 탄자니아, 우크라이나, 예멘, 짐바브웨), 뉴델리(도미니카 공화국), 니코시아(사이프러스), 서울(콜롬비아, 에티오피아, 가봉, 파라과이, 우루과이), 싱가포르(양골라, 아일랜드, 몽골), 도쿄(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피지, 기니, 온두라스, 아이슬란드, 자메이카, 요르단,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리, 마셜제도, 르완다, 사모아, 우간다)</p>

- 영사관 : 134개 (총영사관 7개, 명예영사관 : 127개)

총영사관 (7)	명예영사관 (127)
<p>중국(2) 인도네시아(2)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p>	<p>양골라(2), 오스트리아(2),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보츠와나, 영국,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캐나다, 콜롬비아, 쿡제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네덜란드, 에콰도르(2), 에리트레아(2), 에스토니아(2),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2), 독일(2), 가나,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키리바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코트디부아르, 자메이카,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한국, 라트비아(2), 레바논,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제도, 모리타니아, 멕시코(2), 마이크로네시아,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나미비아, 네팔, 니카라과, 노르웨이, 오만, 필라우, 파푸아뉴기니(2), 페루(2), 폴란드(3), 포르투갈(2), 루마니아(2), 러시아, 엘살바도르, 사모아, 산마리노,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스페인(5), 수단, 스웨덴(2), 시리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통가, 튀니지, 투발루, 터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잠비아, 뉴질랜드(2)</p>

• 국제기구 대표부 : 24개

- ACB(ASEAN Centre for Biodiversity)
- ADB(Asian Development Bank)
- AUSAID(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CIDA(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 ICRC(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IRRI(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UNHCR(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UNIDO(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 UNIC(UN Information Centre)
- UNICEF(UN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 UNFPA(UN Population Fund)
- UNS(UN Systems in the Philippines)
-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WB(World Bank)
- WFP(World Food Programme)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IV

국 방

1. 개요
2. 국방 현대화 계획
3. 대외 군사협력 현황

1. 개 관(2019년 10월 기준)

- 병역제도 : 지원제
- 예비군 : 의무제 (대학졸업자에 국한)
- 국방참모총장 육군대장 : Noel Clement
 육군사령관 중장 : Macairog Saviniano Alberto
 해군사령관 중장 : Robert Arugay Empedrad
 공군사령관 중장 : Rozzano Dosado Briguez
- 병력 수준

구분 \ 군 별	육군	해군	공군
총 병력 : 12만 5천 명	8만 6천 명	2만 4천 명 (해병 8,300명 포함)	1만 5천 명
주요 부대	10개 보병사단 1개 경기갑사단 5개 공병여단 1개 특전사	4개 함대사 4개 해병여단	4개 비행단 8개 지원단
주요 장비	경전차 : 45대 장갑차 : 778대 견인포 : 270문	초계함 : 15척 경비정 : 36척 상륙함 : 5척 군수지원함 : 18척 상륙돌격장갑차 : 8대	FA-50전투기 : 12대 공격기 : 8대 수송기 : 74대 헬 기 : 98대

• 국방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방비	억 페소	804	856	972	1,307	1,478	1,546
	억 달러	18.8	20.5	22.2	26.1	29.6	30.1
정부 예산 비율		8.8%	4.8%	4.0%	4.4%	4.4%	4.1%

2. 국방 현대화 계획

- 목표 : 헌법에 명시된 군 임무 수행 보장 수준의 군사력 건설
 - 최소한의 신뢰할 수 있는 방어 태세 구축
 - 영토 및 주권 보호를 위한 전력 구비
 - ※ 1차 군 현대화 계획(1996~2010)은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해 중단
- 기본 개념 : 3단계, 5개년 계획 시행 (2013~2027)
 - 1단계 (2013~2017) : 최소한의 신뢰방어 기반 구축 및 내부 치안 소요 충족
 - 2단계 (2018~2022) : 최소한의 신뢰방어 기반 구축 및 내부 치안작전 충족
 - 3단계 (2023~2027) : 억제력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 전력 확보

3. 대외 군사협력 현황

가. 군사협력협정 체결 현황

- 1951. 8. 필리핀·미국 상호방위조약
- 1993. 5. 필리핀·싱가포르 군사훈련협정
- 1993.10. 필리핀·호주 군사협력협정
- 1994. 5. 한·필리핀 군수방산협력 양해각서
- 1994. 7. 필리핀·인도네시아 합동국경경비협정
- 1994. 9. 필리핀·프랑스 군사협력협정
- 1999. 5. 필리핀·미국 방문군지위협정
- 1994. 9. 필리핀·말레이시아 방위협력
- 1996.11. 필리핀·영국 군사협력협정
- 1997. 8. 필리핀·태국 군사협력협정
- 1998.11. 한국·필리핀 함정/항공기 상호 방문 시 군수지원 약정
- 2002.11. 필리핀·미국 상호군수지원협정
- 2009.10. 한국·필리핀 특정 방산물자 조달에 관한 시행약정
- 2009.12. 한국·필리핀 함정/항공기 상호 방문 시 군수지원 약정
- 2012. 8. 한국·필리핀 특정 방산물자 조달에 관한 시행약정 개정
- 2013. 8. 필리핀·미국 상호방위조약 개정

- 2014. 4. 필리핀·미국 국방협력증진협정 체결
- 2015. 9. 한국·필리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나. 주요국과의 군사 훈련

- 필리핀·미국 연합 군사훈련
 - 연합 기동훈련, 해군 기동훈련 등 매년 실시
 - 기간 및 병력 규모 : 2~3주, 2천 명 내외
- 필리핀·말레이시아 해상 초계훈련
 - 주기 및 목적 : 연 1회 / 밀수 차단 및 불법 어로 감시, 해적 예방
 - 양국 함정 3~5척이 참가하여 7~10일간 양국 해상경계 구역에 대한 초계

다. 외국 함정 방문

- 한국 : 2010년까지 1~2년 주기로 해군 사관생도 순양훈련함대 방문
 - 2013년 태풍으로 방문 취소 후, 2019년 한·필리핀 수교 70주년 기념 방문
- 미국 : 매년 10여 척이 훈련 참가 및 장병 휴식차 방문
- 일본 : 매년 해상 자위대 함정 3척(잠수함 1척 포함) 순항훈련차 방문
- 호주·뉴질랜드 : 연 1~2회 함정 2~3척이 군사 교류차 방문
- 영국·프랑스 : 1~2년 주기로 함정 2~3척이 군사 교류차 방문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 매년 순항훈련차 방문
- 인도·캐나다 : 2~3년 주기로 군사 교류차 방문
- 대만 : 1999년 방문 시 병사의 군복 착용 불허 방침에 불응한 대만의 조치에 중국 측에서 반발한 이후 실적 무

라. 군사협력 회의

- 정보교류 회의 : 한국,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 군수협력 회의 :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등

A blue-tinted background image featuring a tall, slender monument with a flag on top, set against a cloudy sky. The monument is surrounded by a low wall and other flags in the distance.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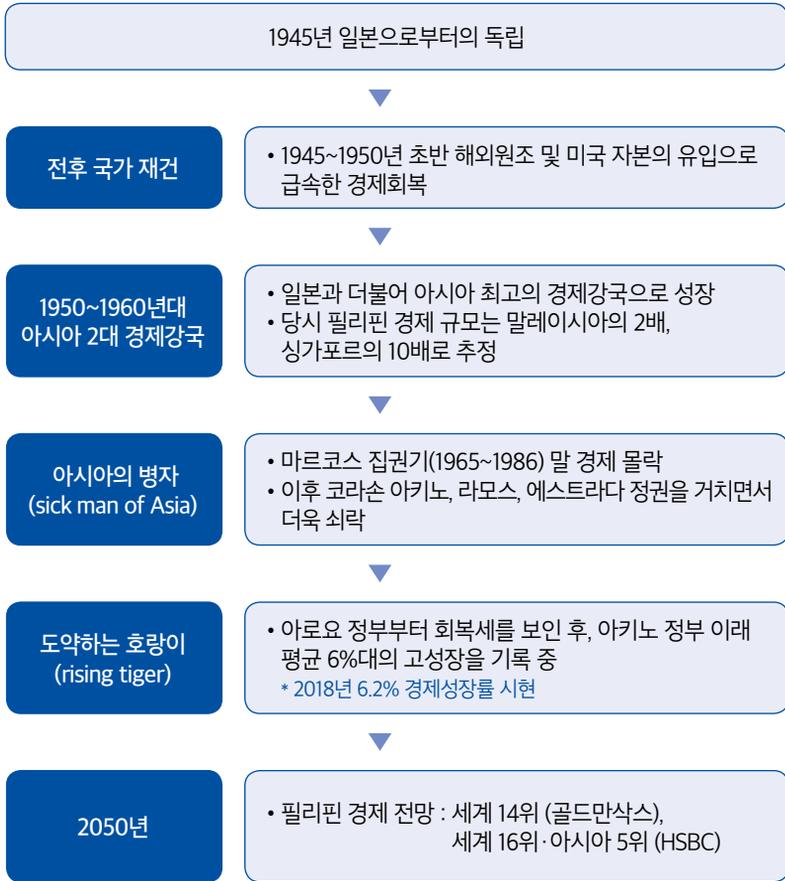
경제

1. 개 관
2. 산 업
3. 교 역
4. 외 국 인 투 자

R E P U B L I C O F T H E P H I L I P P I N E S

1. 개 관

가. 필리핀 근대 경제 상황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GDP 성장률(%)	6.1	6.1	6.9	6.7	6.2
GDP(억 달러)	2,846	2,928	3,049	3,136	3,309
1인당 GDP(달러)	2,849	2,883	2,947	2,989	3,104
실업률(%)	6.8	6.3	5.5	5.7	5.3
물가상승률(%)	3.6	0.7	1.3	2.9	5.2
환율(연평균)	44.4	45.5	47.5	50.4	52.7

출처 : IMF (환율은 세계은행)

나. 최근 경제 동향

- 2016년 6월 출범한 두테르테 정부는 기존의 거시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프라 투자 확대, 세제 개혁,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를 위한 정책 추진
 - 2017년도 필리핀은 강력한 내수와 인프라 중시 정책을 바탕으로 6.7%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아시아 주요 개도국 중 중국(6.9%), 인도(6.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에 해당
 - 2018년 필리핀의 GDP 성장률은 6.2%로, 아시아 신흥국 중 인도(7.1%), 베트남(7.1%), 중국(6.5%)에 이어 4위의 성장률을 시현하는 등 2012년 이후 6% 내외 고성장 지속
- ※ 필리핀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 : 세계은행 6.4% (2019.7. 발표), 아시아개발은행 6.0% (2019.9. 발표)

- 두테르테 정부의 경제정책(Duterenomics)은 2016년 대선 직후 발표된 10개항의 사회경제발전 전략에 기초하고 있으며, 평화와 치안 안정에 기반한 경제성장, 인프라 투자 확대, 조세 등 제도개혁을 추진 (Build-Build-Build'를 표어로 인프라 투자를 중점적으로 확대)
 - ※ 10대 사회경제발전 전략 : ① 거시경제·무역정책 기초지속, ② 조세 개혁, ③ 기업 환경 개선(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완화 등), ④ 인프라투자 확대, ⑤ 농업개발, ⑥ 토지개혁, ⑦ 인적개발 투자(보건·교육 개선 등), ⑧ 과학·기술·예술 증진, ⑨ 저소득층 보호 프로그램 개선(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CCT) 제도 등), ⑩ 가족계획 지원 등

다. 필리핀 경제성장의 동력

(1) 해외 근로자 송금액

- 필리핀은 중국·인도·멕시코 등과 더불어 세계 4대 해외 인력 송출국으로 해외 근로자(OFW : Overseas Filipino Worker)가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 풍부한 영어 구사 인력, 높은 국내 실업률,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이 주요 배경
 - 송출 대상국이 200여 개에 이르며, 전체 근로자의 60%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에 근무
- 해외 근로자의 국내 송금액은 전체 GDP의 9.7%에 육박(2018년 322억 달러)할 정도로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특히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게 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외풍을 차단하고 경제 불황에도 국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
 - 크리스마스에 필리핀으로 귀국하는 해외 근로자들의 국내 소비는 내수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

(2) BPO 산업

- 풍부한 영어 구사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2010년 인도를 제치고 ‘콜센터의 천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BPO(Business Processing Outsourcing) 산업 최적의 투자지로 부상
 - 필리핀 내 총 BPO 기업 수는 1,500여 개
 - BPO 분야 종사자는 105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 2018년 동 분야 총 매출 규모는 245~248억 달러로 추정(출처: 필리핀 Information Technology and Business Process Association), 수년 내 전체 GDP의 11%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시내 중심지 빌딩의 70~80%는 BPO 산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BPO 근로자들의 24시간 교대 근무 패턴에 따른 파생산업(심야요식업, 교통 등)도 동반 성장
- 최근 콜센터와 정보통신(CT)을 접목한 IT-BPO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각광

(3) 인프라 산업

- 아키노 정부는 부패 척결, 재정적자 축소와 더불어 민관협력 사업을 통한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하여 6년간 사업자 선정 단계까지 진행된 사업은 12개에 불과
- 두테르테 정부는 신속한 인프라 사업 진행을 위해 경제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임기 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GDP의 7.4%까지 인프라 관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
 - ‘Golden Age of Infrastructure’에 걸맞은 인프라 투자 대폭 확대

2. 산업

- 2018년 기준 산업 부문별 GDP는 서비스업이 60%, 제조업이 31%, 농림어업이 9.3% 차지(출처: 필리핀 통계청)
 - 서비스 산업이 GDP 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필리핀 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도소매 유통·부동산 및 외국인 투자에 기반한 서비스 수출 중심의 BPO 산업이 서비스 산업에서 큰 비중 차지
 - 제조업은 필리핀 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현지 진출 다국적 기업이 원재료나 반제품을 가공·제조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가공무역 비중이 높음
 - ※ 소비 중심 경제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내수 대상 제조업으로서 식품가공업·음료 산업 등을 중심으로 발전
- 농업은 코코넛·바나나·파인애플 수출이 주를 이루며, 풍부한 강수량과 2모작이 가능한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대지주 중심의 토지제도, 관개 시설 부족, 우량종자 미보급 등으로 인해 쌀 자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쌀을 수입하여 소비(2018년 쌀 수입량 200만 톤(출처: 필리핀 통계청))
 - ※ 우리 농촌진흥청은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 필리핀 소재 국제미작연구소에 연구원 파견

3. 교역

가. 무역수지

- 필리핀은 2011년부터 무역적자가 꾸준히 감소 추세를 유지하여 2014년 적자 폭이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더욱 큰 폭으로 증가

필리핀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교역액	1,328	1,320	1,475	1,559	1,767
수출	618	586	561	631	676
수입	710	734	914	928	1,091
수지	-92	-147	-353	-297	-415

출처: IMF

나. 국가별 교역 현황

- 2018년 기준 필리핀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미국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105.9억 달러이며, 필리핀 전체 총 수출액의 약 16% 차지
 - 필리핀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홍콩, 일본, 중국, 싱가포르 순이며, 한국은 8위
- 2018년 기준 필리핀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중국에서의 수입액은 215.0억 달러이며 필리핀 총 수입액의 약 20% 차지
 - 필리핀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한국, 일본, 미국, 태국 순

다. 품목별 수출입 현황

- 필리핀의 최대 수출품은 필리핀에 진출한 외국계 전자회사에서 생산된 전자제품으로 총 수출액 중 55%를 차지
 - 전자 및 반도체의 경우 TI, SFA반도체, 삼성전기 등 외국계 전자회사가 다수 진출해 있어 이들과 협력한 부품 수입, 반제품과 완제품 제조 및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
 - 그 밖의 주요 수출품은 기타 제조품(6.3%), 기계류 및 운송장비(4.8%), 열선(3.0%), 금속부품(2.5%), 화학(2.0%), 바나나(2.0%), 전자장비 및 부품(1.7%) 등
- 필리핀의 주요 수입품은 전자제품(25.4%), 광물성 연료 관련 제품(12.4%), 운송장비(10.5%), 산업장비(6.0%), 철강(5.3%) 등

4. 외국인 투자

가. 외국인 투자 환경

- ▲최근 실시한 조세 개혁 및 인프라 투자 확대 노력 ▲아세안 및 동아시아 국가와 지리적 인접성(물류 이점)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성 ▲온순한 국민성 ▲영어를 구사하는 젊은 인력 풍부(중간 연령 23.5세) ▲주변국에 비해 안정된 인건비 상승률 등이 장점으로 작용
 - 최근 중국 등 인근국의 인건비가 상승하며 필리핀 노동시장이 대안으로 부각

- 필리핀 정부는 경제성장, 고용증대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며, 특히 자본 및 기술 부족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 필리핀 정부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국내외 투자자에게 균등하게 금전적·비금전적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투자 유치 기관 등록이 필요하나, 현재 진행 중인 조세 개혁에 따른 인센티브 등 변화 중
- ▲취약한 인프라 ▲높은 전기료 ▲헌법에 근거한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 및 일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제도 ▲까다로운 투자 절차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의 비일관성 ▲일부 존재하는 부패 관행은 투자 저해 요소로 지적
-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일부 업종에 외국인 투자 제한 등 각종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때문에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낮다는 지적
 -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리스트(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는 2년마다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외국인 지분 제한을 분야별로 40%, 30%, 25%, 0%(지분소유 금지)까지 차등 적용.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인 지분을 100% 허용
 - 경제계에서는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와 지분제한 제도의 근거가 되는 개헌을 지속 요청하였으며, 두테르테 정부 또한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완화를 추진 중
 - 17대 국회에서 경제 자유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이 호응하지 않아 폐기되었으며, 2019년 7월 개원한 18대 국회 하원에서 경제 자유화 개정안이 다시 제출된 상태

나. 필리핀의 국가신용등급

- 아키노 정권 당시 상향된 필리핀의 신용등급은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
 - Fitch사는 2017년 12월 필리핀의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조정 후 2019년 9월 현재까지 등급 유지
 - S&P사는 2019년 4월 주재국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조정
 - Moody's사는 2014년 12월 필리핀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a2로 상향조정 후 2019년 9월 현재까지 등급 유지

다. 외국인 투자 현황

- 2018년 필리핀에 대한 순 외국인직접투자(Net FDI)는 약 98억 달러로, 2017년 103억 달러 대비 4.1% 감소(출처: 필리핀 중앙은행)
 - 국가별 투자 규모에서는 싱가포르(9.35억 달러), 홍콩(2.7억 달러), 일본(2.19억 달러), 중국(1.98억 달러), 미국(1.6억 달러) 등 순. 한국은 0.48억 달러를 투자하여 순 직접투자(Net FDI) 규모에서 11위에 해당
 - 주요 순 외국인직접투자(Net FDI) 분야는 제조, 금융·보험, 부동산, 전기가스스팀 에어컨 공급, 예술·여가·엔터테인먼트, 도소매업·자동차수리업 등
- 2019년 상반기 필리핀에 대한 순 외국인직접투자(Net FDI)는 약 36억 달러를 기록, 중국(9,900만 달러), 미국(9,600만 달러)에 이어 한국은 3위(5,900만 달러) 순 외국인 직접투자국(출처: 필리핀 통계청)
 - 2019년 상반기 기준 순위 (투자승인액 기준(Approved Foreign Investment)) : (1위) 싱가포르, (2위) 일본, (3위) 네덜란드, (4위) 태국, (5위) 미국, (6위) 대만, (7위) 한국, (8위) 중국, (9위) 호주, (10위) 인도

VI

사회·문화·교육

1. 치안
2. 교육
3. 종교
4. 여성
5. 언론

1. 치안

가. 열악한 치안 환경

- 필리핀 경찰은 약 15만 명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650명으로 높은 수준
 - 경찰 부패도 만연하여 살인, 납치, 금품 갈취, 마약 등 강력사건에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가 빈번
 - 불법 총기가 100만 정 이상이며, 전국적으로 연간 1만 건 이상의 총기를 이용한 강력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기법은 초보적인 수준
- 관광객이 자주 찾는 수빅, 세부 막탄섬, 보홀섬, 보라카이섬 등을 제외하고는 치안상태가 좋지 않으며, 민다나오섬(다바오/카가안데오로시 제외), 술루, 바실란 지역은 테러 및 범죄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고, 이슬람 반군과 정부군과의 교전도 종종 발생
 - 우리 정부는 2015년 1월 25일부로 필리핀 민다나오섬 전체에 대해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 발령
 -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2013년 11건(12명 피살), 2014년 8건(10명 피살), 2015년 10건(11명 피살), 2016년 7건(9명 피살), 2017년 1건(1명 피살), 2018년 3건(3명 피살)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자 수가 감소 추세
- 민다나오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분리 독립파 테러 세력 및 루손 산악지대 및 민다나오 일부 지역을 근거로 한 공산반군 등에 의한 테러 위협이 상존
 - 민다나오 평화협상의 진전에 따라 주류 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평화협상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세력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이 공존

- 한편, 민다나오 지역에서는 알카에다 등 외부 세력과 연계된 아부 사야프(Abu Sayyaf) 그룹 등이 암약하면서 테러 활동 지속

나. 이슬람 반군

- 모로 민족해방전선(MNLF :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
 - 1996년 9월 2일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 MNLF 소속원은 대부분 정부군과 경찰 등으로 편입되었으나, 전 지도자 누르 마수아리(Nur Misuari) 추종 세력이 잔존
- 모로 이슬람해방전선(MILF :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 MNLF 세력 간 내분에 따라 1979년 Hashim Salamat가 MNLF에서 이탈해 창설한 세력으로 이슬람 지역 내 완전한 독립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정부와 MNLF 간 체결된 평화협정에 반발
 - 2001년 6월 정부와 정전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정부군과 MILF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2월 이후 한때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MILF에 의한 테러 공격 증가
 - 2003년 7월 정부와 MILF 간 민다나오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한 잠정 평화협정 체결 이후 양측 간 무력충돌은 다소 감소 추세
 - 2005년 9월 이후 말레이시아 중재로 개최된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어 2008년 8월 양측 간 합의각서(MOA) 서명 직전까지 갔으나 가톨릭계 지자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후 무력충돌 발생
 - 2010년 6월 아키노 대통령 취임 이후 양측 간 협상이 재개되어 2012년 10월 정부와 민다나오 자치정부 수립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담은 기본협정(FAB)에 서명
 - 2014년 3월 27일 양측은 방사모로 포괄협정(Comprehensive Agreement on the Bangsamoro)을 체결하고, 양측 합의 하에 방사모로 기본법안(BBL: Bangsamoro Basic Law)을 마련,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헌법 불합치 논란 속에 폐기

- 2016년 6월 새로 취임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상기 방사모로 협정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방사모로 기본법(Bangsamoro Basic Law)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며, 동시에 연방제로의 개헌도 추진하겠다는 입장
- 2018년 7월 방사모로 조직법(Bangsamoro Organic Law)이 의회에서 가결되어 2018년 8월 시행, 2019년 1월 동법에 따른 비준 주민투표도 가결
- 연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자문위의 개헌과 달리 연방제 도입은 유명무실하고 경제자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하원 가결 개헌안이 상원의 외면으로 2018년 폐기된 이래 연방제 개헌 추진은 지지 부진

- 아부 사야프(Abu Sayyaf) 그룹

- 1991년 8월 압두라자크 아부바카르 잔잘라니(Abdurajak Abubakar Janjalani)가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민다나오에 창설한 과격 테러단체
- 암살·폭탄테러·납치 등의 테러 활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알카에다와도 연계(미국 정부는 테러단체로 지정)
- 2002년 2월부터 7월까지 아부 사야프 반군 소탕을 위한 필리핀·미국 연합훈련으로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본거지를 술루(Sulu) 지역으로 이동 후 현지 반군세력과 합세하여 조직을 재정비
- 특히 인도네시아의 국제테러단체인 Jemaah Islamiyah(JI)와 협력을 강화하여 테러훈련·장비 등을 제공받고 필리핀 내에서 납치·폭탄 테러 등 자행

- 군소 이슬람단체

- 기타 Islamic Command Council, Moro Revolutionary Army, MNLF Reformist Group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활동은 별무

다. 공산반군 : 신인민군(NPA: New People's Army)

- 1968년 모택동주의를 추종하는 필리핀공산당 재건 직후 시손(Jose Maria Sison)이 공산당의 무장조직으로 결성
- 1980년대 중반에 세력을 크게 확장하여 60개 주에 걸쳐 전 국토의 약 25%를 장악하고 1987년 25,000명까지 세력을 확장
- 1985년 말 마닐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도시 게릴라 부대인 ABB(Alex Boncayao Brigade)가 대 정부 전복 활동 전개
- 1991년 8월 철저한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키타나르 사령관 체포 이후 라모스 정부의 사면과 회유로 세력이 감소하고 일반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현재는 루손섬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소규모 병력만 유지
- 2010년 6월 아키노 정부 출범 이후 평화협상이 진행되다가 2011년부터 정체 상태
- 두테르테 신정부 출범 이후 4차에 걸친 평화협상을 통해 ▲양측 간 휴전 문제 ▲정치범과 포로 석방 문제 ▲농지개혁 및 농촌개발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공산반군측의 군경 및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어 2017년 12월 두테르테 대통령은 공산반군 및 공산당 조직을 테러리스트로 지정 협상 중단 선언
- 2018년 9월 현재 네덜란드에 망명 중인 공산당 창립자 시손(Jose Maria Sison) 등 공산당 중앙을 배제하고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 내 공산반군과 개별적으로 협상토록 하는 각개격파 협상 방식 추진 중

2. 교육

가. 역사

- 필리핀 최초의 대학은 1611년 설립된 산토 토마스 대학교(UST)이며,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는 성직자들에 의한 종교교육 위주로 운영
- 1898년 스페인으로부터 영유권을 이어받은 미국은 필리핀인에 대한 교육 보급에 노력하여 공립 초·중등학교를 정비하고 1908년 필리핀 국립대학 설립
- 1946년에 완전독립을 달성한 필리핀은 1935년 헌법을 기반으로 민족주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영어와 타갈로그어를 공용어로 하는 독자적 교육 추진

나. 학제

- 필리핀의 학제는 유치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의 12학년제(유치원+12)
 - 초·중등교육 전 과정이 의무이며, 공립학교에 한하여 무상교육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6세이며,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중등교육 수료 후 전국적인 예비고사와 각 대학의 입학시험 합격 필요
 - 학교 수(2018~2019학년도 기준)
 - 초등학교 : 51,304개
 - 중등학교 : 16,185개
 - 대학교 : 1,963개 (공립 242개, 사립 1,721개)

다. 특징

- 중등교육까지는 누구나 무상으로 수학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 중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문자해독률 : 92.6%)
- 정규 대학은 2천여 개이며, 재학생 수는 2018~2019학년도 기준 약 320만 명이고, 그중 52% 이상이 사립대학에 재학(연간 대학 졸업자 수 약 75만 명)
- 대학생의 40% 정도가 마닐라 소재 대학에 다니고 있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큰 편



3. 종교

가. 구성

- 필리핀의 종교는 가톨릭 83%, 개신교 9%, 이슬람교 5%, 불교 및 기타 3%로 구성
- 루손섬 중심의 기독교 문화권, 민다나오섬 중심의 이슬람 문화권, 그리고 북부 내륙 고지대의 애니미즘 문화권으로 크게 분류

나. 특징

- **(가톨릭)** 1521년 마젤란 도착 이후 전래되었으나 본격적으로 포교된 것은 16세기 후반으로, 17세기 중반부터 주민들 사이에 정착

- 필리핀의 가톨릭은 토착신앙인 애니미즘, 필리핀의 전통 축제 형식과 결합되어 종교 예식을 무척 열광적으로 표현

- **(개신교)** 1899년부터 미국이 개신교를 전파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가톨릭에서는 금지하던 성경의 언어별 번역 작업을 실시하고 교육·의료 분야 등에 적극적으로 진출
- **(이슬람)** 1380년경 술루 군도를 시작으로 민다나오섬에 전파되었는데, 16세기 후반에는 루손섬 남부까지 일시적으로 세력이 확장되었으나 스페인의 가톨릭화 정책으로 현재는 민다나오 지역에만 정착



4. 여성

가. 특징

- 필리핀은 코라손 아키노(Corazon Aquino) 대통령(아키노 前 대통령의 모친)과 아로요 대통령 등 2명의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국가답게 여성의 지위가 높은 편
 - 필리핀 기업의 고위직 중 여성의 비율은 51.5%(전 세계 평균 34%), 18대 여성 상원의원은 총 7명(전체의 29.2%)
 - 2018년 World Economic Forum의 「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여성의 지위 부문에서 필리핀은 149개국 중 8위(한국은 115위)
- 경작을 위해 아들에게는 토지(재산)를 물려주는 대신 딸에게는 교육을 시키던 전통 때문에 남성에 비해 여성의 문자해독률이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

- 중상류층과 달리 빈곤층 여성의 인권은 크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

나. 과제

- 여성 실업률
 - 여성의 교육 이수율은 남성보다 높지만 고용률은 크게 뒤쳐져 있는 상황
 - ※ 교육 이수율 : 중등 - 남성 60.4%, 여성 71.8%
 - 고등 - 남성 30.5%, 여성 40.3%
 - 노동시장 참여율 : 남성 76.9%, 여성 51.4%
 - (출처 : 2018년 세계경제포럼의 「성별 차이 보고서」)
 - 육아와 근로 병행이 어려운 직장 환경, 고소득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 높은 영아 사망률,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 주요 원인
- 여성에 대한 폭력
 - 여성에 대한 불법 감금, 체포, 성폭행, 고문, 살인 등이 광범위하게 자행된 마르코스 독재정권은 여성 인권의 암흑기
 -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은 구금된 여성 정치인들을 석방하는 등 여성 인권 향상에 큰 노력을 기울였으며, 대표적인 예는 Anti-Rape Law의 제정
- 여성 보건 증진
 - 아직까지 높은 산모 사망률(2017년 출생 산모 10만 명당 114명 사망)과 높은 HIV(2013~2018년, 남성 38,869명, 여성 1,794명) 증가 비율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생식보건법(Reproductive Health Law)은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권익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

※ 생식보건법안(Reproductive Health Bill)

- 15대 상원 여성청소년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카예타노(Pia Cayetano) 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 발의한 법률로, 내용은 대국민 피임 홍보, 산아 조절, 산모 건강 보호, 성교육, 가족계획 등

• 이혼 합법화 법안

-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로, 바티칸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혼을 금지하고 있으나 2018년 3월 이혼 합법화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찬성 134표, 반대 57표)
- 현재 다수의 상원의원들과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혼 합법화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최종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
 - ※ 필리핀에는 혼인무효제도가 있기는 하나 소송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는 적음

5. 언론

가. 개요

- 언론계는 1986년 2월 시민혁명(People Power I) 이후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져 마르코스 정권 당시 폐·정간되었던 언론사가 복간되고 새로운 언론사가 창설되는 등 자유언론을 구가
 - ※ 필리핀의 2019년 세계언론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는 134위 (한국은 41위, 북한은 179위)

나. 신문

명칭	설립일	언어	발행부수
Manila Bulletin	1900.2.2	영어	약 40~45만 부
Philippine Star	1986.7.28	영어	약 30만 부
Philippine Daily Inquirer	1985.12.9	영어	약 30만 부
Manila Standard	1987.2.11	영어	약 13만 부
Manila Times	1898.10.11	영어	약 20만 부
Business World	1967.2.27	영어	약 15만 부
Business Mirror	2005.10.3	영어	약 8만 부
Malaya Business Insight	1983.1.17	영어	약 8만 부
The Daily Tribune	1999.1.10	영어	약 13만 부

다. TV 방송국

- 국영방송 PTV4 외에 민영방송 6개사가 있으며, ABS-CBN과 GMA Network가 양대 방송사
- 방송 언어는 타갈로그어와 영어이나 주 언어는 타갈로그어

명칭 (채널)	설립일
ABS-CBN	1946.6.13
PTV 4	1974.2.2
TV5	1960.6.19
GMA	1950.3.1
CNN Philippines	1960.6.29

명칭 (채널)	설립일
IBC 13	1960.3.1
NET 25	1968.4.26

라. 라디오

- AM 방송국 411개, FM 방송국 1,014개

VII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기본 관계
2. 정무 관계
3. 경제·통상 관계
4. 문화·인적 교류
5. 영사·교민 관계

1. 기본 관계

- 1949. 3. 3 수교
- 1950. 9.19 6·25전쟁에 필리핀 파병
- 1954. 1.19 마닐라에 공사관 설치
- 1954.11.11 서울에 공사관 설치
- 1958. 2. 1 각각 대사관으로 승격

필리핀의 6·25전쟁 참전 현황

- 파병 기간 : 1950.9.19 ~ 1955.5.13
- 총 인원 : 7,420명(총 5개 보병대대가 1개 대대씩 교대 참전)
- 사상자
 - 전사 : 112명
 - 부상 : 299명
 - 실종 : 57명 (41명은 포로교환으로 송환)
- 주요 전투
 - 울동 전투 : 철의 삼각지대(연천)에서 중공군 1개 대대 규모 격퇴
 - 아스날고지 전투 : 1952년 6월 연천 북방에서 중공군 1개 대대 격퇴
- 1959년 7월 15일 참전용사회(Philippine Expeditionary Forces to Korea) 설립
 - ※ 라모스 전 대통령은 소대장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였으며, 아키노 전 대통령의 부친인 니노이 아키노(Benigno Simeon Ninoy Aquino Jr.) 상원의원은 6·25 전쟁 당시 <마닐라 타임스>의 중군기자로 활약

2. 정부 관계

가. 개 관

- 필리핀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국·영국·프랑스·대만에 이어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와 수교한 오랜 우방이자, 6·25전쟁에 7,420여 명을 파병해 준 혈맹국
- 필리핀은 6·25전쟁 참전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 가장 친한(親韓)적인 국가의 하나
- 필리핀은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우리와도 안보 이해 공유
- 필리핀은 인구 1억 명 이상의 잠재적 대형 시장으로서 필리핀의 자원·인력과 우리의 자본·기술을 결합하여 상호 보완적 협력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 다대
- 2018년에는 필리핀을 방문한 우리 국민이 약 159만 명을 기록하여 필리핀 내에서 외국인 방문객 중 1위(약 23%)를 차지하는 등 인적 교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필리핀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 급증

나. 양국 정상 교류 현황

- 우리 정상의 필리핀 방문
 - 1966.10. 박정희 대통령
 - 1981. 7. 전두환 대통령 공식방문
 - 1994.11. 김영삼 대통령 공식방문

- 1999.11. 김대중 대통령 국민방문
- 2005.12. 노무현 대통령 국민방문
- 2007. 1. 노무현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세부)
- 2011.11. 이명박 대통령 국민방문
- 2015.11. 박근혜 대통령 (APEC 정상회의)
- 2017.11.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 필리핀 정상외교의 한국 방문

- 1993. 5. 라모스 대통령 공식방한
- 1999. 6. 에스트라다 대통령 국민방한
- 2003. 6. 아로요 대통령 국민방한
- 2005.11. 아로요 대통령 공식방한 (APEC 정상회의, 부산)
- 2009. 5. 아로요 대통령 공식방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주)
- 2013.10. 아키노 대통령 국민방한
- 2014.12. 아키노 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
- 2018. 6. 두테르테 대통령 공식방한

3. 경제·통상 관계

가. 교역 현황

- 양국 간 교역액은 2011년부터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2014·2017·2018년에는 대 필리핀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초과
- 2018년 기준, 필리핀은 한국의 제8위 수출 대상국이자 제28위 수입 대상국

한·필리핀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총 교역액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3	8,783	7.0	3,706	12.9	12,489	5,077
2014	10,032	14.2	3,331	-10.1	13,363	6,701
2015	8,318	-17.1	3,252	-2.4	11,570	5,066
2016	7,278	-12.5	3,229	-0.7	10,507	4,049
2017	10,594	45.5	3,702	14.7	14,296	6,892
2018	12,037	13.6	3,569	-3.6	15,606	8,468

※ 출처: 한국무역협회

나. 투자 현황

- 1968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전체 누계 기준 한국 기업의 대 필리핀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총 약 56억 5,560만 달러(신고 기준)(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의 필리핀 투자는 에너지, 전기, 전자, 섬유, 조선뿐만 아니라 SOC 건설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

※ 한국전력, 삼성전자, 삼성전기, 포스코건설, SFA반도체 등이 주요 투자 기업

- 2019년 상반기 투자액 기준, 한국은 대 필리핀 7위 투자국
 - 싱가포르, 일본, 네덜란드, 태국, 미국, 대만, 한국, 중국, 호주, 인도 순
 - ※ 출처 : 필리핀 통계청(2019년 2분기 기준)
- 최근 5년간 매년 50여 개의 신규 법인이 투자하고 있으며 신고 금액 또한 2016년을 제외하고 2억 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나, 2019년 1분기 기준 투자 건수는 다소 감소
- 필리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제조업, 서비스, 건설·공사, 금융 등으로, 200여 개 기업이 진출

한국의 대 필리핀 투자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신고 건수(건)	209	181	208	216	207
신고 금액(백만 달러)	125	217	183	586	215
신규 법인 수(개)	51	43	55	47	47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다. 우리 기업 진출 현황

- 한국의 주요 투자 기업들은 한국전력(발전), 한진중공업(조선소), 삼성전기(칩저항기·콘덴서), SFA반도체(반도체), 신한·기업·외환·우리은행(금융) 등
- 2019년 1분기 기준 업종별 한국의 대 필리핀 투자 비중(신고 금액 기준)은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6.8%) ▲건설업(34.5%) ▲제조업(12.9%)

▲부동산업(10.1%) ▲숙박 및 음식점업(3.8%) ▲광업(1.5%) ▲정보통신업(0.4%) 순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19년 3월까지의 투자 실적 반영

- 건설 분야의 경우, 2019년 8월 기준 우리 기업의 필리핀 누적 수주는 총 473건 159.9억 달러
- 주요 진출 분야 : 플랜트(87억 달러), 토목(49억 달러), 건축(14억 달러)

라. 개발협력 현황

-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ODA 지원은 무상원조(1991~2018년 누계) 약 2.6억 달러(잠정, 2018년 약 2,600만 달러), EDCF(1990~2017년 누계) 약 9.5억 달러
- ※ 출처 : 무상원조는 KOICA, EDCF는 한국수출입은행

(1) 무상원조(KOICA)

- 대 필리핀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근거 ▲필리핀 국가개발계획(Philippine Development Plan/2017-2022)의 성공적 수행 지원 및 ▲필리핀의 경제사회 발전과 빈곤 감소 기여를 통한 양국 간 우호와 교류협력 증진을 지원 목표로 설정
- 중점 지원 분야
 - 기초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한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 지원
 - 소외지역 빈곤층 빈곤 감소를 위한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성 향상
 - 지속가능 경제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지원
 -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한 재해 위험 감축 지원
- 지원 규모 :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총 2.6억 달러
- KOICA는 마닐라 사무소를 1994년에 설치하고 운영 중
 - 소장 등 6명, 봉사단 47명

(2) 유상원조(EDCF)

- 1990년 ‘1차 전화통신망 확충사업’을 시작으로 총 20개 사업에 대하여 9억 5,100만 달러를 지원(2017년 말 기준)하여 EDCF 전체 승인액의 6.6% 차지
 - 필리핀은 53개 수원국 중 베트남(19.1%), 방글라데시(8.7%)에 이어 3위 규모(중점지원국)
- 수출입은행은 마닐라 사무소를 2011년 설치하고 운영 중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유상원조 현황

사업명	승인월	승인액		추진 단계
		(억 원)	(백만 달러)	
1차 전화 통신망 확충 및 현대화사업	1990.5.	38	5.4	조기상환
민다나오 송 변전 설비 확충사업	1994.7.	86	10.7	조기상환
루손 송 변전 설비 확충사업	1994.7.	93	14.0	조기상환
2차 전화 통신망 확충사업	1994.7.	82	10.2	조기상환
생견사 제조 해투사업	1990.6.	6	0.9	조기상환
라컨딩간 공항개발사업	1996.12.	212	25.0	원리금 회수 중
라컨딩간 공항개발사업(보충)	2004.5.	76	8.2	원리금 회수 중
남부마닐라 통근철도사업	2003.12.	332	35.0	원리금 회수 중
남부마닐라 통근철도사업 보충용자	2009.12.	170	15.3	차관 계약 체결
GSO 도로확장 및 긴급준설사업	2005.11.	230	22.3	원리금 회수 중
GSO 도로(2차) 건설사업	2008.12.	323	28.3	원리금 회수 중
바콜로드-실라이공항진입도로 건설사업	2008.12.	150	13.1	원리금 회수 중

사업명	승인월	승인액		추진 단계
		(억 원)	(백만 달러)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개선사업	2009.12.	771	71.6	자금 지출 중
남북부 연결철도 2차 사업	2009.12.	1,064	95.9	차관 계약 체결
라퀸딩간 공항 항법설비 공급사업	2010. 9.	143	13.3	원리금 회수 중
사마르 해안도로사업	2011.12.	229	20.6	시공사 입찰 중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2012. 6.	2,306	207.9	시공사 입찰 중
팜팡가 통합 재난위험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	2013. 5.	893	80.5	상세 설계 중
팡일만 교량건설사업	2015.12.	1,182	100	컨설턴트 입찰 중
세부 신항만 건설사업	2017.10.	차관 계약시 결정	173	차관 계약 체결 전
합계 (20건)		8,386	951.2	

마. 노동협력 현황

- 필리핀은 2004년 16개 송출국 중 최초로 우리와 외국인고용허가제(EPS)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2018년 말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누적 총 7만 5천여 명을 우리나라에 송출

필리핀 근로자 송출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누계
전 세계 EPS	489,100	51,019	59,822	50,837	50,400	47,800	748,978
필리핀 EPS 쿼터	56,723	4,590	4,820	4,299	5,600	4,300	80,332
필리핀 쿼터 비율	9.7	9.0	8.0	8.5	11.1	9.0	10.7

4. 문화·인적 교류

가. 문화 교류

- 2003년 필리핀의 대표 공중파 방송인 GMA7에서 <명랑소녀 성공기>, <가을동화> 등을 방영한 이후 최근 방영한 <도깨비>, <힘쎈여자 도봉순> 등 지금까지 필리핀 주요 방송사를 통하여 300여 편이 넘는 한국 드라마 방영
 - 최근 4~5년간 필리핀의 양대 방송사인 GMA7과 ABS필리-CBN에서 매일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으며, 필리핀 국민들은 한국 드라마를 ‘코리아노벨라(Koreanovela)’라 부르면서 즐겨 시청
 - tvN이 제작한 <도깨비>는 재방영임에도 최고 시청률 17.1%를 기록
 - 2017년 이후 제작된 최신 드라마도 4편이 방영 중이며, 특히 MBC가 제작한 <왕은 사랑한다>, <로봇이 아니야>는 평균 시청률 13%를 기록
 - 2018년 한 해 동안 GMA Network와 ABS-CBN 두 정상급 방송사에서 51개의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었는데 <고백부부>(장나라·손호준 주연)는 평균 시청률 13.8%로 가장 인기
 - 2019년에도 다수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 지속 방영 중

- 2009년 이후 유행하기 시작한 K-Pop은 소규모의 팬클럽을 제외하고도 55개의 중·대 규모 팬클럽들이 결성되는 등 상당한 인기를 구사
 - 필리핀 최대의 팬클럽인 Philippines K-Pop Convention Inc. (비영리 법인)은 필리핀 내 팬클럽들의 허브(hub) 역할
 - 2017년 K-Pop 공식 사이트 접속 집계 40만 명 이상 추정
 - 2009년 9월 ‘소리소리’ 음반을 발매한 슈퍼주니어는 앨범 판매량 10만 장을 돌파하며 한국 가수 최초로 골드 판매 기록
 - 2010년 원더걸스의 ‘노바디’는 필리핀 대선 캠페인 송으로, 2013년 사이의 ‘강남스타일’은 필리핀 총선 캠페인 송으로 사용
 -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빅뱅(2015), 방탄소년단, GOT7, AOA(2016), 싸이, EXO, 샤이니, 방탄소년단(2017), 워너원, 모모랜드(2018), 블랙핑크, EXO, 트와이스(2019) 등이 필리핀을 방문하여 성황리에 공연
- 드라마와 음악에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식으로 확산되고 있어 메트로마닐라를 중심으로 한국 음식점이 늘고 있으며, 한국 화장품 및 한국 패션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

나. 인적 교류(2018년 기준)

- 필리핀 방문 한국인 : 159만 명(필리핀 관광청)
 - 외국인 방문객 중 1위 (전체 방문객 중 약 23% 차지)
- 한국 방문 필리핀인 : 471,532명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다. 재외국민 현황(2018년 기준)

- 필리핀 내 한국 국민 : 85,103명 (주필리핀 대사관)
- 한국 내 필리핀 국민 : 60,139명(법무부)

5. 영사·교민 관계

가. 동포 현황

- 2018년 말 기준, 필리핀에 거주 및 체류 중인 교민 수(시민권자 포함)는 85,103명
- 1990년대 들어 대기업의 직접투자,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 이주 증가에 따라 동포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소자본 개인사업자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유학생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동포 수가 급증하였으나 최근에는 정체 상태

나. 한인학교

- 한글학교(토요학교) : 총22개 한글학교가 대사관에 등록 및 운영 중
- 필리핀 한국국제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 우리나라 및 필리핀 정부에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로, 2010년 3월 정식 개교
 - 총 사업비 : 약 500만 달러(정부 지원금은 약 244만 달러)
 - 학교 건물 규모 : 건물 1동(지하1층, 지상 3층)
 - 학생 수 : 2018년 4월 기준 총 200여 명

다. 한인단체

- 한인 총연합회 : 1967년 설립
 - 12개 지회 : 마카티, 마닐라/파사이, 퀘존, 안티폴로/리잘, 실랑/다스마리냐스, 올티가스/파식/만달루용, 라구나/산타로사, 따가이따이, 바콜로드, 카가안데오로, 팔라완, 제너럴산토스
 - 8개 지역한인회 : 남부마닐라(따라냐케/알라방), 중부루손(양헬레스), 수빅, 바기오, 보라카이, 일로일로, 세부, 다바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북부협의회 : 1981년 설립
- 한국부인회 : 1977년 설립
 - 필리핀 거주 한국 여성의 친목 도모 및 봉사활동 주도
- 한국상공회의소 : 1994년 설립
 - 현지 투자업체, 지상사, 200여 개 한인업체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필리핀 정부가 인정하는 6개 외국 상공회의소 중 하나
- 경제인 총연합회 : 2001년 설립
 - 식당, 소규모 사업, 여행사 등을 영위하는 한인들의 모임으로, 현재 300여 개 업체가 회원
- 무역인협회 : 1990년 설립
 - 교포 무역인들의 모임으로, 현재 40여 개 업체가 회원으로 등록
- 대한체육회 필리핀지회 : 2001년 설립
 - 2005년부터 매년 국내 전국체전 참가(2011년 종합우승)
- 대한노인회 필리핀지회 : 1992년 설립, 2017년 4월에 대한노인회에 가입
 - 회원 수 : 약 80명

VIII

북한과의 관계

1. 정무 관계
2. 통상 관계
3. 각종 단체

1. 정무 관계

가. 기본 관계

- 2000년 7월 외교 관계 수립
- 2007년 필리핀-북한 관계 발전 합의각서 체결
- 상주공관 없음
 - 필리핀은 주중국 대사관, 북한은 주태국 대사관이 겸임
- 2019년 9월 기준, 필리핀-북한 간에 체결한 양자 조약·협정 없음

나. 주요 인사 교류 현황

- 북한 인사의 필리핀 방문
 - 1991. 6. 김달현 부총리
 - 1995. 2. 이도섭 주태국 북한대사
 - 1996. 4. 이삼로 주태국 북한대사 (샤하니(Shahani) 의원 초청)
 - 2001. 4. 조인철 주태국 북한대사 (신임장 제정)
 - 2004. 1. 오송철 주태국 북한대사 (신임장 제정)
 - 2008.11. 김영일 외무성 부상
 - 2009.11. 최연 북한 무역성 부상 (동아시아해양회의)
 - 2011. 1. 안성남 주태국 북한대사 (신임장 제정)
 - 2015. 6. 문성모 주태국 북한대사 (신임장 제정)
 - 2017. 4. 문성모 주태국 북한대사 (제8차 쿠바와의 연대 아태지역회의)
 - 2017. 7. 최희철 외무성 부상 (ARF 외교장관회의)

- 2017. 8. 이용호 외무상 (ARF 외교장관회의)
- 2019. 7.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회의)
- 필리핀 인사의 북한 방문
 - 1990. 6. 베네시아(de Venecia) 하원 외무위원장
 - 2000. 9. Ople 상원 외교위원장
 - 2001. 5. Jose Villa 주중국 필리핀대사 (신임장 제정)
 - 2011. 7. Basilio 외교부 정책차관 (제2차 북한-필리핀 정책협의회)
 - 2013. 7. Basilio 주중 필리핀대사 (신임장 제정)
 - 2015.10. Zarate 야당 하원의원 등
 - 2018. 7. Barbo PDP-Laban 비사야 담당 부총재

2. 통상 관계

- 필리핀의 대 북한 교역량은 2013년부터 급증하였으나 2016년은 전년 대비 30.5% 감소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대북 안보리 제재에 맞춰 교역 급감(수입은 없는 것으로 파악)
- 필리핀의 대 북한 주요 수출품은 과일 및 견과류, 구리 제품, 운송장비, 기계류, 전자회로, 케이블 등이며, 수입품은 가솔린(motor spirit), 가스 오일(gas oils), 고무·플라스틱 제조 기계 등
 - 2018년 대 북한 수출품의 경우 담배 및 궤련 제품 등이 대부분

필리핀의 대 북한 교역 현황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입	1	11	63,224	47,753	0	0
수출	22,045	46,130	54,928	40,561	2,137	235
총 교역량	22,046	46,141	118,153	88,315	2,137	235

출처 : 필리핀 통계청

3. 각종 단체

가. 필리핀-북한 친선협회

- 2003년 3월 이후 조직된 친북협회
- 조직위원장 : 넬리아 산초(Nelia Sancho)
- 2013년 이후 사실상 활동 중단

나. 북한-필리핀 친선협회

- 서기장 : 김문철



부 록

1. 주요 인사 약력
2. 협정 및 조약 체결 현황
3. 역대 공관장 현황
4. 양국 공간 현황

1. 주요 인사 약력

가. 대통령

성 명	로드리고 두테르테 (Rodrigo Roa Duterte)	
생년월일	1945년 3월 28일	
출생지	필리핀 중부 레이테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8 필리핀 Lyceum 대학 졸업(정치학) • 1972 마닐라 San Beda 대학 졸업(법학)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 변호사 시험 합격 • 1977~1986 다바오시 검찰청 검사 • 1986~1988 다바오시 부시장 • 1988~1998 다바오시 시장(3연임) • 1998~2001 하원의원 • 2001~2010 다바오시 시장(3연임) • 2010~2013 다바오시 부시장 • 2013~2016 다바오시 시장 • 2016.6.~현재 대통령 	
가족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처 Elizabeth Zimmerman와의 사이에 2남1녀 • 동거인 Honeylet Avanceña와의 사이에 1녀 ※ 장녀 Sara Zimmerman Duterte-Carpio는 현 다바오 시장 장남 Paolo Zimmerman Duterte는 전 다바오 부시장 	
방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이전 3회 방한 • 2013. 9. 로터리클럽 참석 • 2014.10. KEC와 다바오 LRT사업 예비조사 및 관광차 방한 • 2018. 6. 공식방한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언어 : 비사야어(필리핀 중부 언어), 타갈로그어, 영어 • 다바오 시장 재직시 성인지적 도시 Galing Pook(우수 지역) 수상 	

나. 부통령

성명	마리아 레오노르 제로나 로브레도 (Maria Leonor Gerona Robredo)	
생년월일	1964년 4월 23일	
출생지	나가시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 필리핀 대학 졸업(경제학) • 1992 누에바 카세레스 대학 졸업(법학)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 사법시험 합격 국선변호사 • 2005 카마리네스 수르 지역 자유당(LP) 의장 • 2007 SALIGAN(여성·빈민 지원 NGO) 법률자문관 • 2013 카마리네스 수르 제3지구 하원의원 • 2016 주탁도시발전협조위원장 • 2016~현재 부통령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녀 • 배우자는 故 Jesse Manalastas Robredo 내무지방자치부 장관 ※ 2012년 여객기 추락사고로 사망 	
방한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관광차 방한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언어 : 타갈로그어, 영어 •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두테르테 정부의 초법적 처형 및 마약과의 전쟁 등 인권 유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 	

다. 상원의장

성 명	비센테 소토 3세 (Vicente C. Sotto III)	
생년월일	1948년 8월 24일	
학 력	산 후안 데 레트란 대학 졸업(영문학 학사)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 코미디언 • 1988 케존시 부시장 • 1992 상원의원(3연임) • 2008 대통령실 위험약물위원회 위원장 • 2010~현재 상원의원(3연임) 	
가족 관계	부인과 4자녀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Corona) 대법원장 탄핵 주도 • 2013년 14번째 월급 지급에 대한 법안 발의 • 2012년 Reproductive Health 법안 관련 연설 표절 시비 • 상원 내 다수의 위원회에서 위원장 역임 	

라. 하원의장

성명	알란 피터 카예타노 (Alan Peter <u>Cayetano</u>)	
생년월일	1970년 10월 28일	
출생지	따귀시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 필리핀 국립대학교 졸업(정치학) • 1997 알테네오 법대 졸업(법학 박사)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 따귀시 시의원 • 1995 따귀시 부시장 • 1998 변호사 시험 합격 • 1998 하원의원(3연임) • 2007 상원의원 • 2017 외교장관 • 2019 하원의장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 Ma. Laarni L. Cayetano (현 따귀시 시장) • 누나 Pia Cayetano는 현 하원 부의장(전 상원의원) 	
방한 경력	2017년 외교장관으로서 방한	
특기사항	2013년 필리핀 최우수청년상 정부·공공부문 수상	

마. 외교장관

성 명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 (Teodoro(Teddy) Locsin Jr.)	
생년월일	1948년 11월 15일	
출생지	마닐라시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테네오 대학 법학 학사 • 하버드 대학 로스쿨 석사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1985 Ayala 그룹 회장 수석 보좌관 • 1986~1992 Aquino 대통령 대변인 겸 법률고문 및 연설비서관 • 1998~2001 Estrada 대통령 법률고문 및 연설비서관 • 1988~2093 <Daily Globe> 일간지 발행인 • 1993~2005 <Today's Newspaper> 일간지 발행인 겸 편집장 • 1993~2013 월간지 'Philippine Free Press' 이사 • 1994~2003 ABS-CBN 방송국 'Assignment' 진행자 • 1998~2001 Estrada 대통령 법률고문 및 연설비서관 • 2001~2010 Arroyo 대통령 법률고문 및 연설비서관 • 2001~2010 Makati시 제1구역 하원의원 • 2011~2017 ANC 방송국 'The World Tonight's Teditorial' 진행자 • 2014~현재 필리핀 라디오 'DZRH Executive Session' 진행자 • 2015~2017 San Beda 대학교 법학교수 • 2016 ANC 방송국 '#NoFilter' 진행자 • 2016~2018 주유엔 필리핀 대사 • 2018~현재 외교부 장관 	
가족 관계	부인과 4자녀	
특기사항	사용 언어 : 타갈로그어, 영어	

2. 협정 및 조약 체결 현황

일 자	양자 조약 및 협정
1960.11.11	비이민여권의 사증수수료 면제각서
1961.1.1	소포우편협정
1961.2.24	무역협정(1964.8.8 개정)
1969.8.11	항공운수협정(1994.4.11, 2009.4.22 개정)
1970.9.1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각서교환
1973.4.27	문화협정
1978.11.6	무역협정(1961년 및 1964년의 무역협정 대체)
1985.6.13	경제기술협력협정
1986.8.12	과학기술협력협정
1986.11.9	이중과세방지협정
1991.1.30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교환각서
1996.9.25	투자보장협정
1996.11.30	범죄인인도조약
1997.10.24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교환각서
2001.2.8	한-필리핀 친선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 시행 약정
2003.6.3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
2003.6.3	한-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의 건립 약정
2003.6.3	한-필리핀 정보기술훈련원의 건립 약정

일 자	양자 조약 및 협정
2004.1.29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약정
2005.12.15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약정(GSO 도로 확장 및 준설사업)
2007.12.13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용자 차관 공여 약정
2007.12.21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2008.11.17	형사사법공조조약
2009.5.30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사업 시행 약정
2011. 9. 7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약정(라귀딩간 공항 항법지원설비)
2011.11.21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2014.1.2	무상원조 기본협정
2015.9.14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016.4.28	한-필리핀 팡일만 대외경제협력기금 교량사업 차관 약정
2018. 5. 4	한-필리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7~2022년)에 관한 기본약정

3. 역대 공관장 현황

가. 역대 주필리핀 대한민국 공관장

역대	성명	신임장 제정일
초대 공사	김영기	1954. 1. 10
2대 공사	김 훈	1957. 8. 23
초대 대사	김 훈	1958. 2. 12
2대 대사	신동기	1961. 1. 18
3대 대사	이형근	1961. 7. 19
4대 대사	김용식	1962. 10. 11
5대 대사	유양수	1963. 12. 10
6대 대사	윤석현	1967. 11. 17
7대 대사	김세린	1969. 12. 15
8대 대사	장지량	1973. 6. 20
9대 대사	강영규	1976. 7. 6
10대 대사	송광정	1980. 7. 15
11대 대사	이남기	1981. 11. 25
12대 대사	김창훈	1984. 5. 22
13대 대사	안재석	1987. 4. 7
14대 대사	노정기	1989. 3. 16
15대 대사	이창수	1993. 2. 4

역대	성명	신임장 제정일
16대 대사	이장춘	1995. 4. 12
17대 대사	박동순	1997. 12. 12
18대 대사	신성오	1999. 3. 23
19대 대사	손상하	2001. 10. 9
20대 대사	유명환	2004. 3. 15
21대 대사	홍종기	2005. 11. 2
22대 대사	최중경	2008. 10. 17
23대 대사	이혜민	2010. 7. 5
24대 대사	이혁	2012. 10. 4
25대 대사	김재신	2015. 6. 8
26대 대사(현재)	한동만	2018. 1. 17

나. 역대 주한 필리핀 공관장

역대	성명	신임장 제정일
초대 공사	Thomas G. De Castro	1954. 5. 11
2대 공사	Cosme P. Garcia	1956.10.25
초대 대사	Eduardo T. Quintero	1958. 7. 25
2대 대사	Juan M. Arreglado	1960. 4. 12
3대 대사	Pedro L. Ramirez	1964. 7. 9
4대 대사	Benjamin T. Tirona	1968. 5. 10
5대 대사	Nicanor T. Jimenez	1980. 2. 15

역 대	성 명	신임장 제정일
6대 대사	Tomas R. Padilla	1986. 2. 9
7대 대사	Raul Rabe	1992. 4.
8대 대사	Francisco L. Benedicto	1993. 6. 29
9대 대사	Ernesto S. Gidaya	1996. 2. 13
10대 대사	Juanito Jarasa	1999. 5. 20
11대 대사	Aladin G. Villacorte	2003.11.
12대 대사	Susan O. Castrence	2006. 1. 27
13대 대사	Luis T. Cruz	2008. 2. 15
14대 대사	Raul S. Hernandez	2014. 8. 10
15대 대사	Noe A. Wong	2019. 8.21

4. 양국 공관 현황

가.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s,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gacio, Taguig City 1634, Metro Manila, Philippines
근무시간	월~금 08:3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전화	+63-2-8856-9210
팩스	+63-2-8856-9008/9019(본관), 9024(영사과)
이메일	philippines@mofa.go.kr
시차	-1시간(우리보다 1시간 늦음)

나. 주세부 분관

주소	12F Chinabank Corporate Center, Lot2, SamarLoop, Cor. Road 5, Cebu Business Park, Mabolo, Cebu City, Philippines
근무시간	월~금 08:3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전화	+63-32-231-1516~9
팩스	+63-32-231-2950
이메일	phi_cebu@mofa.go.kr

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5-1
근무시간	월~금 08: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전 화	(02)796-7387~9
팩 스	(02)796-0827

필리핀 개황

발행일 2019년 11월
발행처 외교부 동남아1과
편집디자인 나무와숲(02-3474-1114)
인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ISSN 2005-9132 비매품

※ 이 책의 내용은 <http://www.mofa.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105-14

ISSN 2005-9132

